

# Sulwhasoo

Vol.64 September/October 2014



균형의美  
거문고와 스텔



韓

雪花秀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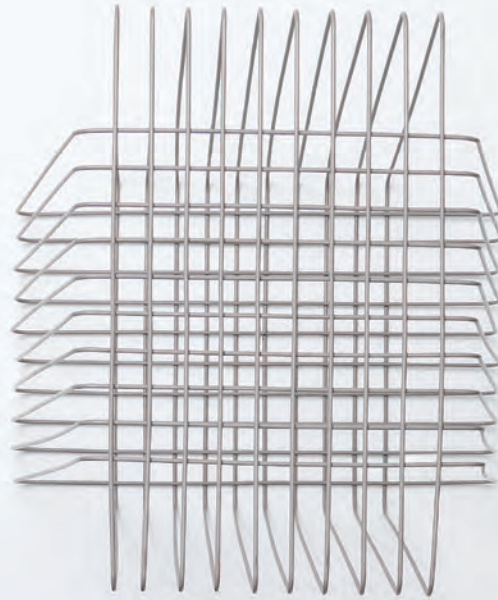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니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차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가야금과 테이블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고흥근 선생의 거문고와 가야금, 철제 소재의 ADD INTERIOR사의 연철 스툴과 스틸 소재의 테이블.



## 팽팽하다

It is autumn again, and you need to defy the dry autumn air with an anti-aging skin formula to keep your skin firm and younger-looking. Symbolizing firm skin free of wrinkles, various contemporary artworks that depict traditional Korean strings, which play beautiful melodies and have firm lines, have been gathered to present “being firm” within a space. In the traditional strings of Korea, the strings should be firmly tied to produce the beautiful sounds. They can only be completed by Korea’s traditional masters, such as Goh Heung Gon and Cho Joon Suk from Chungbuk Province, whose specialty is musical instruments. With the violin, the major string instrument from Western culture, and the furniture and lighting with firm lines, you will witness the firm harmony of traditional strings and modern designs.

건조한 가을 공기에 맞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한 팽팽한 동안 피부의 안티에이징이 필요한 가을 시즌이 돌아왔다. ‘주름 하나 없는 팽팽한 피부’의 의미를 담아 현을 튕겨 아름다운 가락을 만들어내는 우리 전통 현악기와 팽팽한 선을 모티브로 디자인된 다양한 현대의 작품이 만나 ‘팽팽(膨膨)하다’를 보여주고 있다. 늘어짐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현을 제대로 만들어야 온전한 음을 낼 수 있는 우리의 현악기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악기장 기능보유자 고흥곤 선생, 충청도 무형문화재 악기장 조준석 선생을 비롯 우리 전통 장인들이 직접 손으로 묶고 조어야만 팽팽한 상태의 전통 현악기로 완성된다. 여기에 현대 현악기의 대표 아이템 바이올린과 팽팽한 라인의 조형미를 살린 가구, 조명을 통해 전통 현악기와 현대의 팽팽한 조화와 균형의미를 엿볼 수 있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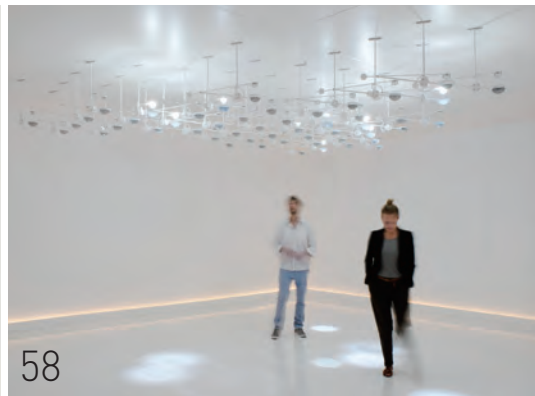
**표지**는 충청도 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 조준석 선생의 해금과 사일런트 전기 바이올린 **뒤표지**는 박성기 선생의 양금과 테이블 램프 **양쪽 페이지**는 최태진 선생의 아쟁과 마담스톨츠 블랙 체어.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부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고경은 **도움** 주신 곳 궁중국악기(031-791-9927), 고흥곤 국악기연구원(02-763-3508), 난계국악기제작촌(043-742-7288), 덴스크(02-592-6058), 메종드실비(02-518-2220), 소릿고을(031-286-7545), 아마하뮤직코리아(080-004-0022), 웰즈(02-511-7911), 카레(02-545-9871)





30



58



70



86



48

한국 문화 읽기	문방사우 Munbangsawoo	06
집 안 단장	향으로 물들이다	10
몸 단장	우아하고도, 무구한	12
피부 섬기기	피부를 생각하는 설화수의 메이크업	14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스스로에게 시선이 머무는 순간, 발레리노 김용길	18
격조 높은 삶	만월 추석을 맞다	24
추석 풍속 살펴보기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26
어우러지다	한가위에 입는 우리 한복	30
살펴보다	여인들의 기원을 담은 춤, 강강술래	38
세밀하게 보다	靑을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	40
설화수의 사계	단풍에 깃든 아름다움	48
월드 헤리티지	뛰어난 불꽃의 상징, 에스티듀폰(S.T. Dupont)	52
아트 클래스	젊은 작가들의 매혹적인 상상력	58
잇다	꺼짐없이 9대째 이어가는 조선백자의 '혼불'	64
설화보감	오곡백과에 만월이 깃들다	70
설화수를 말하다	고귀한 아름다움을 담다	76
설화도감	가을 산, 붉게 물들어	80
미색보감	적송으로의 피부 회복	84
설화과학	동서양 피부 미인의 비법	86
마음 단장		88
문화 즐기기		92
설화수 뉴스		93
Insidеs Sulwhasoo		94
독자 선물		96

# Sulwhasoo

September/October 2014

## 자연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빼어난 아름다움, 설화수

설화수의 시작은 바로 한방 화장품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한방 화장품의 대명사라는 명성을 얻기까지는 여성의 피부에 대한 애정과  
 한방 성분에 대한 열정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반드시 우리 땅에서 움트고 자란 순수한 국산 한방 성분만을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설화수의 자존심입니다.  
 이 땅의 좋은 한방 성분을 찾기 위한 노력과 애환이 제품 하나하나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설화수의 이러한 역사와 철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고집과 신념을 지닌 채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으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설화수의 정신은 옛 여인들이 지닌 아름다움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물의 시작은 자연입니다. 자연에서 취한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가꾸고,  
 자연과 하나되는 자연과의 조화와 균형, 이것이 바로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감입니다.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매거진입니다.

Sulwhasoo, conveying the Asian philosophy and the Korean wisdom, expresses the aesthetic of harmony and balance. The cover of this  
 issue of Sulwhasoo Magazine explores the aesthetic of a harmonious blend through the "harmony and balance" created by the artworks  
 of Korea's traditional masters and contemporary artists. The Sep./Oct. issue shows 'being firm' with the firm balance and harmony of the  
 traditional Korean strings created by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asters of Korea and contemporary accessories.

아시아의 철학과 한국의 지혜를 담은 설화수는 조화와 균형의 미학이 담겨 있다. 설화수 매거진의 표지에서는 한국 전통 장인과  
 현대 작가의 작품이 빛어내는 '조화와 균형'을 통해 조화로운 어울림의 미학을 찾아보고자 한다. 9/10월호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선정된 악기장 고희곤, 조준석 선생을 비롯 우리 전통 장인들의 손길에서 탄생한 한국 전통 현악기와 팽팽한 균형과 조화를 이  
 루는 현대적인 소품이 만나 '팽팽하다'를 보여준다.

●발행인·사경혜 ●편집인·류재현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번지 시그니처 빌딩 ●제작·Luxury MC 팀 ●문의·문선영 02)879-3541  
 ●편집·디자인·Solution Co., Ltd. ·서울시 강남구 청담2동 85-3 남한강빌딩 3층·Vip Marketing Dept. 02)3443-6923 www.ineighbor.co.kr 편집·  
 김미경, 신현화 디자인·조윤형 ●발행일·2014년 9월 1일(통권 제64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Scan Et Photoengraving Ing  
 Process ●인쇄·(주)태신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영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격월간지로서 월간 (Neighbor)를 발행하는  
 Solution Co.에서 제작 대행하고 있습니다.



# 문방사우 Munbangsawoo

무진한 네 가지의 벗



아녀자들의 생활 공간으로 안채가 있었다면 선비들에게는 사랑(舍廊)이 있었다. 사랑은 선비들이 벗과 더불어 시를 읊고, 서화를 논하고, 답소를 나누는 곳이었다. 그리고 문방(文房)이 있다. 문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종이, 붓, 먹, 벼루다. 선비들에게 이 네 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벗과도 같은 존재라 하여 '사우(四友)'라 했다. 이로써 종이, 붓, 먹, 벼루는 문방사우라는 이름을 얻는다.

문방사우는 문방사후(四侯), 사보(四譜, 四寶)라고도 한다. 특히 문방사후의 경우, 벗도 모자라 각각에 벼슬 이름까지 붙여 '사후'라 하였으니, 선비들에게 문방사우는 각별한 애정의 대상을 넘어 무진하고도, 살아 있는 벗과 진배 없는 소중한 무엇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문방사우를 오랜 벗처럼 대한 일화들도 많다. 미술평론가 손철주에 따르면, 조선 인조와 숙종 대에 벼슬한 이현식은 자신이 쓰던 붓을 떠나보내며 장례까지 치렀다 한다. 애지중지하던 붓이 닳아버리자 애틋한 마음으로 무덤을 만들어주었고, 이를 '필총(붓 무덤)'이라 했다. 영·정조 대의 문인 이덕무는 한술 더 떠, 붓 무덤 곁에 파초를 심어 붓의 혼을 달랬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숙종 때까지 살며 대제학과 공조판서를 지낸 김진규는 유배지에서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좁쌀 몇 뒷박을 얻기 위해 아끼던 필묵을 내다 팔고는 깊은 상심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다.

“서생은 평생 남아도는 물건이 없으니 전부터 종사해온 것이 오직 필묵 생활인지라, 슬플 때나 기쁠 때, 근심할 때나 즐거울 때 이것에 의지해 온갖 정성을 쏟았는데 하루 아침에 두 가지가 없어졌으니 어찌하랴.” 문방사우에 대한 선비들의 정성이 이토록 지극하고도 절절하였다.

네 벗을 좀 더 들여다보자. 종이는 서기 105년 중국의 채륜이 만들었고, 우리나라에 조지 기술이 도입된 시기는 200년경으로 추측한다. 오늘날의 '한지'라는 용어는 1950년 이전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원래 우리 민족은 종이를 있는 그대로 종이, 조히, 조선지, 창호지,

The women lived in Anchae, whereas the noble scholars had Sarang. Sarang was where the noble scholars sang poetry, discussed writings and paintings, and shared friendly talks with their buddies. This is why it was also called Munbang. Munbang had to have paper, a brush, ink, and an ink stone. As these four stationeries were friends of the noble scholars, they were called Sawoo. Today, Munbangsawoo is used to refer to paper, a brush, ink, and an ink stone.

There are many anecdotes on how our Korean ancestors handled Munbangsawoo as their old buddies. According to Son Chul Joo, an art critic, Yi Hyun Suk, who served in a government position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and King Sukjong in the Joseon Dynasty, even held a funeral when he discarded his old brush. When his favorite brush was worn out, he sadly made a tomb for it and named the tomb Pilchong (brush tomb). Lee Deok-moo, a scholar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even planted a plantain beside his brush tomb to console the spirit of his brush. Kim Jin Gyu, who served in high-class government positions until the reign of King Sukjong, wrote the following to express his disappointment after he sold his beloved brush and ink in exchange for some baskets of millet as he ran out of rice to eat in his place of exile. “A scholar always lives a life of scarcity, and only my brush and ink have lived with me whenever I was sad, happy, worried, and joyous. I always did my best while depending on them, and what should I do now since both of them are gone at once?”

Let's learn more about the four buddies. Paper was made by CaiLun of China in 105 B.C.E., and the papermaking technique is assumed to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at around the year 200. Today's Hanji is not found in any literature written before 1950. The Korean people called paper Jongi, Johi, Joseonji, Changhoji,



문종이, 참종이, 닥종이, 저지 등으로 불렸다. 그 외에도 재료와 만드는 방법, 쓰임새, 생산지, 크기에 따라 달리 불렸고, 한 종류가 두세 가지 이름으로도 불렸다. 때문에 어느 종이든 어느 이름인지는 전문적 연구 없이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옛 문헌과 기록에 나오는 종이 이름만도 100여 가지나 된다.

붓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라 때로 추정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 가야 시대 벼루와 창원 다호리 목관분에서 출토된 붓 5자루가 소장되어 있다. 붓은 털의 품질이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동물의 털로 만들었는데, 우리 선조들이 애용한 것은 족제비 털(황모), 다람쥐 털(청모), 노루 겨드랑이 털(장액), 재래종 염소 털(양모)이다. 명나라 <고반여사>에 '조선의 낭미필이 좋다'는 기록이 있는데, 낭미필이 족제비 털로 만든 붓이다. 추사 김정희는 돼지 털로 만든 돈모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벼루는 문방사우의 꽃이라 불린다. 당대의 생각과 생활상이 벼루의 다양한 형식과 문양에 드러나 있다. 벼루의 종류와 명칭은 산지와 재질, 형태와 용도, 모양과 문양 등에 따라 무궁무진하다. 삼국 시대에는 흙으로 구워 만든 토연과 유약을 발라 구운 도연이 사용되었다. 고려 때는 특히 석연이 유행하였고, 조선 시대에는 벼루의 문양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가장 아름답기로는 위원의 화초석, 가장 좋은 재질로는 보령의 남포오석이 있다.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먹 빛이라 했던가. 추사는 문방사우 중 첫째가 먹이요, 둘째가 붓이라고 할 정도로 먹을 강조했다. 한국의 전통 먹은 소나무 그늘음으로 만든 송연묵과 기름 그늘음으로 만든 유연묵이 있다. 중국 <고려도경>은 송연묵을 명품으로 기록한다. 송연묵은 대개 목판 인쇄, 유연묵은 주로 금속 활자 인쇄와 서예에 사용하였다. S

에디터 신현화 사진 문성진 참고 서적 <문방사우>(이경노, 대원사) 도움 받은 곳 구하산방(02-732-9895)

Chamjongi, Dakjongi, or Jeoji. Other names were given to it according to its material, method of production, usage, origin, and size, and one kind was sometimes called by two to three names.

It is assumed that the brush was first made during the Silla Dynasty. The Ewha Women's University Museum has an ink stone from Gaya and five brushes found in the wooden tomb of Daho-ri in Changwon. When it comes to the brush, the quality of the hair is most important. The hair of various kinds of animals was used, but our Korean ancestors preferred Siberian weasel hair (Hwangmo), squirrel hair (Cheongmo), roe deer armpit hair (Jangaek), and native goat hair (Yangmo). KaopanYushi from the Ming Dynasty wrote that "Joseon's Nangmipil is good." Nangmipil refers to a brush made with Siberian weasel hair.

Ink stone is known as the flower of Munbangsawoo. The thoughts and lifestyles in each era are reflected in the forms and patterns of ink stone. The types and names of ink stone are endless according to its origin, material, form, use, shape, and pattern. In the time of the Three Empires, Toyeon and Doyeon were used. Toyeon was earthenware, and Doyeon was lacquered earthenware. Seogyeon was popular in the Goryeo Dynasty, and the patterns and shapes of ink stones developed much during the Joseon Dynasty.

Was it said that the color of ink does not fade for a thousand years? Chusa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k, saying that ink is the first among Munbangsawoo and the brush comes after it. The traditional Korean ink includes Songyeonmuk, which is made with pine soot, and Yuyeonmuk, which is made with oil soot. GaoliTujing of China records Songyeonmuk as a premium ink. Songyeonmuk was generally used for wood printing, whereas Yuyeonmuk was used for movable metal typing and calligraphy.



## 향으로 물들이다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 공간을 물들이는 향기 아이템. 가을철 집안 단장의 화룡정점이라 하겠다.



단풍이 물들 때면, 집안 단장에 마음이 좀 더 쓰인다. 이럴 때, 좋은 향기로 집안을 물들이면 아로마 효과는 물론 일상의 순간도 기록할 수 있다. 좋은 향기는 일생의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는 법이 아닌가.

오래전부터 향기는 나쁜 냄새를 없애고, 심신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우리 선조들은 향료주머니(향낭)를 만들어 애용하였다. 또 조선 시대 선비들은 독서나 시를 지을 때면 방안에 향료를 지켰고, 부부의 침실에는 사향을 사르고 난 향 촛불을 밝혔다 한다. 옛 시대에도 오늘날의 디퓨저나 아로마 효과에 버금가는 일상 속 조향의 지혜가 존재한 셈이다.

전통 향에서부터 다양각색의 향초와 디퓨저, 비누 및 관련 소품 등의 향기 아이템으로 가을철 집안 단장의 마무리를 완성해 보자. 그윽한 향기가 마음을 정화하고, 공간이 따뜻한 기운으로 채워질 것이다. S

에디터 신현화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고경은  
 도움 주신 곳 파리스앤젤(02-535-2505), 레호(070-8840-6688), 메종드실비(02-518-2220),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스토어앤스토리지(070-8273-4502), 이노메싸(02-3463-7752), 루밍(02-599-0803)



1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진가를 발휘할 향초 홀더는 레호. 2 고급스러운 다크 그레이와 미니멀한 디자인을 자랑하는 오일 버너는 레호. 3 100% 천연 유래 성분의 한방 홀리스틱 향초 '윤조지향', 설화수. 4 촛불을 끌 때 그윽음을 방지하는 스누퍼는 스토어앤스토리지. 5 4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스웨덴 럭셔리 액세서리 브랜드 SKULTUNA 제품인 황동 촛대는 이노메싸. 6 예술 작품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매력의 세라믹 티라이트는 메종드실비. 7 방향제로 사용하는 오브제. 열쇠 모양은 클레드룬 향, 장미 모양은 로즈 향으로 파리스앤젤.

8 단아하면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는 컵과 플래이트는 정소영의 식기장. 전통과 미니멀한 멋이 공존하는 풀문 디퓨저는 메종드실비. 9 향초 심지를 정리하는 실버 심지 가위는 스토어앤스토리지. 10 클래식한 매력의 세라믹 향수병은 파리스앤젤. 11 알루미늄 소재의 말 모양 캔들 홀더는 루밍. 12 고풍적이고 럭셔리한 마리 앙투아네트 디퓨저는 파리스앤젤.





## 우아하고도, 무구한

은은한 빛깔과 우아한 멋으로 여인의 아름다움을 배가하는 레이스.  
한국의 고풍적인 멋과도 참 많이 닮아 있다.



1 고전적인 기품의 터키시 레이스 목걸이는 파리스앤젤 2 소박하고 질박한 매력의 터키시 레이스 귀고리는 파리스앤젤 3 귀족적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의 레이스 헤어 피스는 루이엔젤 4 우아하고 고상한 매력의 터키시 레이스 팔찌는 파리스앤젤 5 대나무 살과 은근한 조화를 이루는 레이스 부채는 릴리캣 6 디테일한 레이스 장식이 돋보이는 슈즈는 신바이잇슈즈

서양에서 들어왔지만 한국의 고풍적인 멋과도 제법 잘 어울리는 레이스. 은은하고 질박한 빛깔의 하얀 레이스는 우리네 백의민족을 연상시킨다. 레이스는 바탕 천 위에 무늬를 가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침 무늬를 만들어내는 직물을 말한다. 바탕 천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자수와 다르다. 레이스는 기법에 따라 무늬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는데, 예술 작품이라고 할 만한 레이스는 대부분 니들 포인트 레이스거나 보빈 레이스다.

니들 포인트 레이스는 양피지 위에 실로 무늬의 테두리를 감치고,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바늘과 실로 무늬를 만든 다음, 양피지로부터 떼어낸다. 실은 원칙적으로 연속돼 있어야 한다. 보빈 레이스는 '필로(틀) 레이스'라고도 한다. 몇 개의 보빈(Bobbin)을 필로 위에서 조작하여 실로 짜고 무늬를 만든다.

그윽한 가을 정취 속에서, 여성스러우면서도 기품 있는 레이스 소재로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느껴보는 건 어떨는지. S

에디터 신현화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고경은  
도움 주신 곳 앤틱반(02-512-1343), 릴리캣(070-7568-2449), 파리스앤젤(02-535-2505), 메종드실비(02-518-2220), 노리(02-6677-5356), 루이엔젤(02-2252-8787), 신바이잇슈즈(02-543-8132), 테크(02-540-4723, #135)



## 피부를 생각하는 설화수의 메이크업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신개념 제품 2가지가 출시된다. 자연스러운 피부결과 피부톤을 만들어주는 보정 기능과 함께 피부 밸런스와 피부탄력을 돕는 스킨케어 기능까지 더한 설화수 메이크업밸런서와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이다.



메이크업은 기초 단계가 중요하다고들 한다. 기초 단계의 스킨케어가 제대로 되어야 하루 종일 들뜨지 않으면서 촉촉하고 윤기 나는 피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스킨케어 단계를 꼼꼼히 해 준다고 해도, 메이크업 제품이 스킨케어 기능을 돕지 못하다면 피부 밸런스는 쉽게 무너진다. 매일 장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하는 여성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설화수는 메이크업 효과는 물론, 스킨케어 기능까지 겸비한 스마트한 신제품을 출시한다. 설화수 메이크업밸런서와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이 바로 그것.

설화수 메이크업밸런서는 피부에 노화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 최적의 피부 균형을 만들어주는 설화수 브랜드의 제3세대 메이크업베이스다. 피부톤 보정을 위한 메이크업 첫 단계에서 사용하는 메이크업베이스이지만, 보정 기능 뿐만 아니라 피부의 힘, 유수분, 피부 톤&결의 밸런싱까지 도와 노화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피부 불균형 요소를 개선하는 스킨케어 기능까지 더했다. 제품은 향산화 성분이 풍부한 각종 베리 추출물이 피부 힘을 끌어올려 피부 노화를 늦추고, 보습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천연 유래와스와 오일의 보호막 효과로 수분이 날라가는 것을 막아주며, 360° 고르게 빛을 반사시켜주는 꽃잎 모사 파우더의 블러링 효과로 피부톤을 밝고 환하게 만들어준다. 윤조에센스가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사용하듯 메이크업밸런서는 메이크업 첫 단계에 사용한다. 기존 메이크업베이스에서 사용하던 실리콘 유화제의 미끌거림과 끈적임 현상을 보완해, 바르는 순간 촉촉하면서도 끈적임 없이 밀착되는 편안한 텍스처가 피부에 편안함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메이크업밸런서는 2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컬러 별로 함유된 원료 또한 특별하다. 라이트핑크(1호)는 석류추출물이 함유되어 피부를 생기 있고 혈색있게 표현해준다. 라이트퍼플(2호)은 작약추출물이 함유되어 칙칙한 피부톤을 화사하게 표현해준다.

피부의 힘, 유수분, 피부 톤&결의 밸런싱을 맞춰 주는 메이크업밸런서는 스킨케어 기능을 더한 메이크업베이스다.

To resolve these concerns of women who wear makeup for hours each day, Sulwhasoo introduces two new smart makeup products for skin texture and skin tone correction with skincare functions. They are Sulwhasoo MAKEUP BALANCER and VOLUMINATING FOUNDATION.

Sulwhasoo MAKEUP BALANCER is Sulwhasoo brand's third-generation make-up base that establishes the optimum balance for the skin when aging begins. It was previously released as a makeup base for skin tone correction, but it has skincare functions that correct the resilience and wrinkles in the first stage of aging with fortification, oil-moisture balance, and skin tone and texture correction. It is formulated with assorted berry extracts rich in antioxidants to fortify the skin and to defy aging, and its natural wax and oil blend to create a protective skin barrier for moisture retention. Also, its blurring effect for even light reflection at 360° leaves the skin tone bright and clear.

Sulwhasoo MAKEUP BALANCER is used in the first step of applying makeup, just a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used in the first step of skincare. Its comfortable texture that feels supple upon application and is not slippery and sticky due to its silicon emulsifier leaves the skin feeling light and comfortable. A gentle squeeze of the tube-type container releases a small amount onto the hand for smoothing over skin. MAKEUP BALANCER comes in two tones: Light Pink (#1) contains pomegranate extracts to leave your skin full of life and energy, while Light Purple (#2) contains peony root extracts to brighten your dull skin tone.

Without resilience, the U line of the face from the eye area to the lip area. Sulwhasoo's new VOLUMINATING FOUNDATION



피부에 탄력을 더해 주고 화사한 U라인은 눈, 볼 옆, 입 옆을 잇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볼류미네이팅 파운데이션은 탄력망의 꽃살 무늬가 퍼프에 찍혀 미적인 면까지 고려했다.

나이가 들면서 시작되는 여성들의 대표적인 피부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탄력 저하다. 눈 옆, 볼 옆, 입가로 이어지는 얼굴의 U라인은 탄력이 저하되면서 눈에 띄게 늘어지고 처져 보인다. 설화수가 새롭게 출시하는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은 설화수의 대표 안티에이징 크림인 탄력크림의 공통성분을 함유해 하루 종일 파운데이션이 아닌 탄력크림을 얼굴에 바른 듯, 편안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을 제공하는 크림 파운데이션이다.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은 스무딩 젤과 더블 리프팅 레이어를 통한 단계별 처방 설계로 늘어지고 주름이 생긴 피부에 탄력을 더해 준다. 은행잎 추출물이 함유된 탄력크림 성분이 피부에 활력을 더하고, 미세한 블루펄 파우더가 투명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만들어준다.

이와 함께 바를 때 손에 묻거나 왁작 쏟아지는 불편함을 개선한 특허 출원 혁신 용기도 돋보인다. 인체과학적 설계를 통해 쫄쫄한 피부 질감을 모사한 탄력망이 고농축 크림 파운데이션 내용물을 미세하게 걸러내어 얇고 깨끗한 커버가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여기에 한국 전통 여인들이 사용하던 화장 도구를 연상시키는 퍼프와 설화수를 대표하는 꽃살 무늬를 넣어 퍼프로 찍었을 때 문양이 묻어나는 탄력망은 미적인 감각까지 고려하였다.

볼류미네이팅파운데이션은 특별히 커버력을 세분화시켰다. 자연스러운 커버력으로 피부의 노란기를 커버해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미디엄 핑크(21호), 붉은기를 보정하는 미디엄 베이지(23호) 보다, 높은 커버력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미디엄 핑크 커버(C21호), 미디엄 베이지 커버(C23호) 이렇게 4가지로 출시된다. 사용법은 퍼프를 탄력망에 1~2회 정도 눌러 파운데이션을 묻혀주고,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퍼프를 사용해 전체적으로 퍼발라준 뒤, 퍼프에 바르고 남은 양은 눈 옆, 볼 옆, 입가를 잇는 U라인을 따라 톡톡 두들겨 발라줘 U라인에 탄력과 화사함을 더해 피부톤을 보정해준다. S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고경은 도움 주신 곳 담연(02-546-6464)

contains the ingredients of Sulwhasoo's Essential Firming Cream, which is its signature anti-aging cream. It is a creamy foundation that leaves the skin feeling comfortable and smooth, as if you used the Essential Firming Cream, not the foundation.

VOLUMINATING FOUNDATION is formulated with a Smoothing Gel and a Double Lifting Layer to give resilience to skin that is beginning to sag and form wrinkles, and Essential Firming Cream contains ginkgo leaf extracts that promote blood circulation and the radiant Blue Pearl Powder that leaves your skin clear and radiant. The cream comes in the world's first container to eliminate the inconvenience of migration to the hand or spilling out. The elastic mesh that is ergonomically engineered to mimic the dense skin texture finely filters the concentrated cream foundation formula to allow thin and clean coverage. With the puff that will remind you of the cosmetics that traditional Korean women used to wear, and Sulwhasoo's signature pattern on the mesh, the cream, when applied with the puff, appears on the puff in the shape of the pattern for aesthetics.

VOLUMINATING FOUNDATION comes in four tones: Medium Pink (#21) to correct the yellowness of the skin for a brighter skin tone, Medium Beige (#23) to correct the redness, and Medium Pink (Cover) (#C21) and Medium Beige (Cover) (#C23) for the customers that skin added coverage.

To apply VOLUMINATING FOUNDATION to brighten the U line, press the mesh with the puff once or twice, and apply the foundation over the face from the center out. Pat the remaining amount on the puff over the sides of your eyes and cheeks, and at the lip area along the U line, to enhance the resilience and brightness of your skin in those areas.

설화수와 인연을 맺다



발레리노 김용걸

## 스스로에게 시선이 머무는 순간

마지막 컷이 끝났는데도 그는 촬영장에서 발을 떼지 못하고 모니터에 남은 자신의 사진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뭔가 슬프기도, 가슴이 찡하기도 했단다. 좀체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발레리노의 심리적 동요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 우리의 이야기는,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노에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연습생으로 과감히 자리를 옮긴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파리의 가르니에 극장 연습실. 발을 내딛기가 헛갈릴 정도로 극장 내부는 미로처럼 얽혀 있고, 불어가 어색했던 그는 몰어몰어 연습실을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방인에게 쏟아진 것은 온통 낯선 시선들뿐. 눈 감고도 척척 해내던 동작조차 발을 떼지 못할 만큼 당혹스럽고 불편한 순간이었다.

“당시에는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우연히 파리에 계신 선생님께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견습생 선발 이야기를 알려주셔서 기대 없이 담담히 지원했죠. 솔직히 합격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는데, 5명 선발에 3등으로 겨우 입단했어요. 속으로 ‘오케이, 한번 해 보자’ 싶었죠.”

당당한 포부로 시작된 파리 오페라 발레단 생활은 입단 이후부터 점차 부담감이 되어 밀려왔다. 견습생으로 들어간 자리였기에, 그가 초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군무 동작을 옆에서 관찰하며 순서를 외우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세계적인 발레단에서 숨쉬고 있음을 깨달았다. 150명에 이르는 파리오페라 발레단의 시스템과 레퍼토리는 물론 무용수들의 마음가짐 또한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것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그렇게 파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놀람과 감탄으로 쌓여 갈수록, 발레리노 김용걸이 우리나라에서 쌓은 화려한 경력들은 빠르게 흐릿해져 갔다. 모스크바 국제 발레 콩쿠르 동상이나 파리 국제 발레 콩쿠르 듀엣 부분 금상과 같은 묵직한 수상경력을 비롯 국내 국립 발레단 주역 무용수로 대접받던 순간들이 점차 과거의 기록으로 남아버린 것이다.

#### 어머니의 권유에서 시작한 발레

“사실 5개월 동안의 견습생 생활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서 발레를 했으니까요. 군무 견습생을 하면서 연습량이 줄어 몸은 점점 불어났고, 살을 빼기 위해서 아침식사를 안 하고 나머지는 물로 대신하면서 치열하게 연습을 해야만 했죠.”

그는 결국 타지에서 다시 신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다. 발레단에서 정단원을 모집하기 위한 오디션 공고가 발표된 것. 하지만 선발 인원 1명에 지원한 무용수는 무려 57명. 그리고 57명 가운데, 발레리노 김용걸도 속해 있었다.

잠깐 덧붙이자면, 발레단에서 합격자를 공지하는 방식은 매우 무심하면서 고전적이다. 합격자 발표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지원자들은 막연히 설렘과 초조함을 안고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어느 날 불쑥 1등부터 10등까지의 명단이 적힌 종이가 벽에 붙는다. 무용수의 운명은 작은 A4 용지에서 매섭게 갈리게 된다.

“발레단에 들어가려는데, 기량이 뛰어난 견습생 2년차 무용수가 제게 시선을 피하며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벽에 붙은 공지를 보니 제 이름이 굵은 글씨로 맨 윗줄에 쓰여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욱~’하는 감정이 치고 올라왔죠. 하지만 전 담담히 극장을 빠져나와 센강을 거닐다 울음을 터트렸어요.”

무용수로는 고령이라는 26살, 거기에 한국에서 온 이방인 무용수가 5개월 만에 정식단원으로 선발되었으니, 그 누가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정단원이 된 5년 후, 좁은 관문을 거쳐 1명의 솔리스트로 선정되면서 파리 오페라 발레단 최초의 동양인 솔리스트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6월까지 그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솔리스트로 활약했다.

발레리노 김용걸은 발레 조기교육을 받지 않은 케이스다.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머니의 권유로 다소 늦은 나이에 발레를 시작했다. 얼핏 사춘기 남자아이가 어머니의 권유로 민망한 스타킹을 신고 발레를 시작했다고 하면 누군





가는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 넷을 키우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매우 엄한 어머니였다.

“조기교육을 받지 않았으니 남다른 소질 따윈 없었죠. 그런데 운이 따랐던 건지, 부산예고 재학하던 중에, 콩쿠르에서 2등을 했어요. 개근상 말고는 그럴듯한 상 한 번 받지 못한 제가 2등상을 가져오자, 무뚝뚝한 아버지마저 흐뭇하셨는지 ‘니가 웬일이야, 좀 하나보네’ 하시더라고요.”

우연처럼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무대 위 선배 무용수들의 몸짓에 반하게 되면서 그는 점차 춤에 빠져들었다. 마치 귀에서 ‘계속 춤을 춰라’라는 말이 속삭이는 것처럼 그는 미친 듯이 몸을 움직였다. 한 번 꽂히면 무섭게 돌진하는 부산 사나이의 기질을 보여주듯, 춤에 대한 갈망은 무서운 연습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노로 성장하였다.

#### 부상이 안겨준 제2의 인생

요즘 그의 활동 공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이다. 파리에에서의 발레리노 생활을 접고, 국내로 돌아와 강단에서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다. 부상을 당해 관리를 받던 때에 고국에서 교수 제의를 받았고, 내심 한국으로 돌아가 무엇인가 해내고 싶다는 심적 갈증에 목말라하던 시기라 고국행을 결정했다.

“이곳은 다른 방식으로 치열한 공간이에요. 발레단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해내면 되지만 교수로서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무도 짜고 콩쿠르에 나가는 학생들까지 봐줘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이야기가 이쯤 진행되었을 때 포토그래퍼가 촬영 컷 하나를 인쇄해 그에게 건네주었다. 미소를 짓던 그의 시선이 왼쪽 발에서 천천히 느릿하게 넘어갔다. 발레 문외한이 보더라도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의 발. 그랬다, 수많은 무대에서 그를 지탱하던 김용걸의 발은 아직 온전치 못했다.

“사실 왼쪽 발이 많이 안 좋아요. 매일 고통스럽게 연습을 이어가고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촬영을 하고 제 사진을 모니터에서 확인했을 때 마음이 묘하게 출렁였어요. 슬프다고 해야 할까요, 시선을 떼지 못하겠더군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정말 춤을 그만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안무가로서 완전히 돌아서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춤을 더 추어야 할까, 더 출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요. 마치 2000년 파리로 떠날 때처럼 어떤 갈림길에서 있는 기분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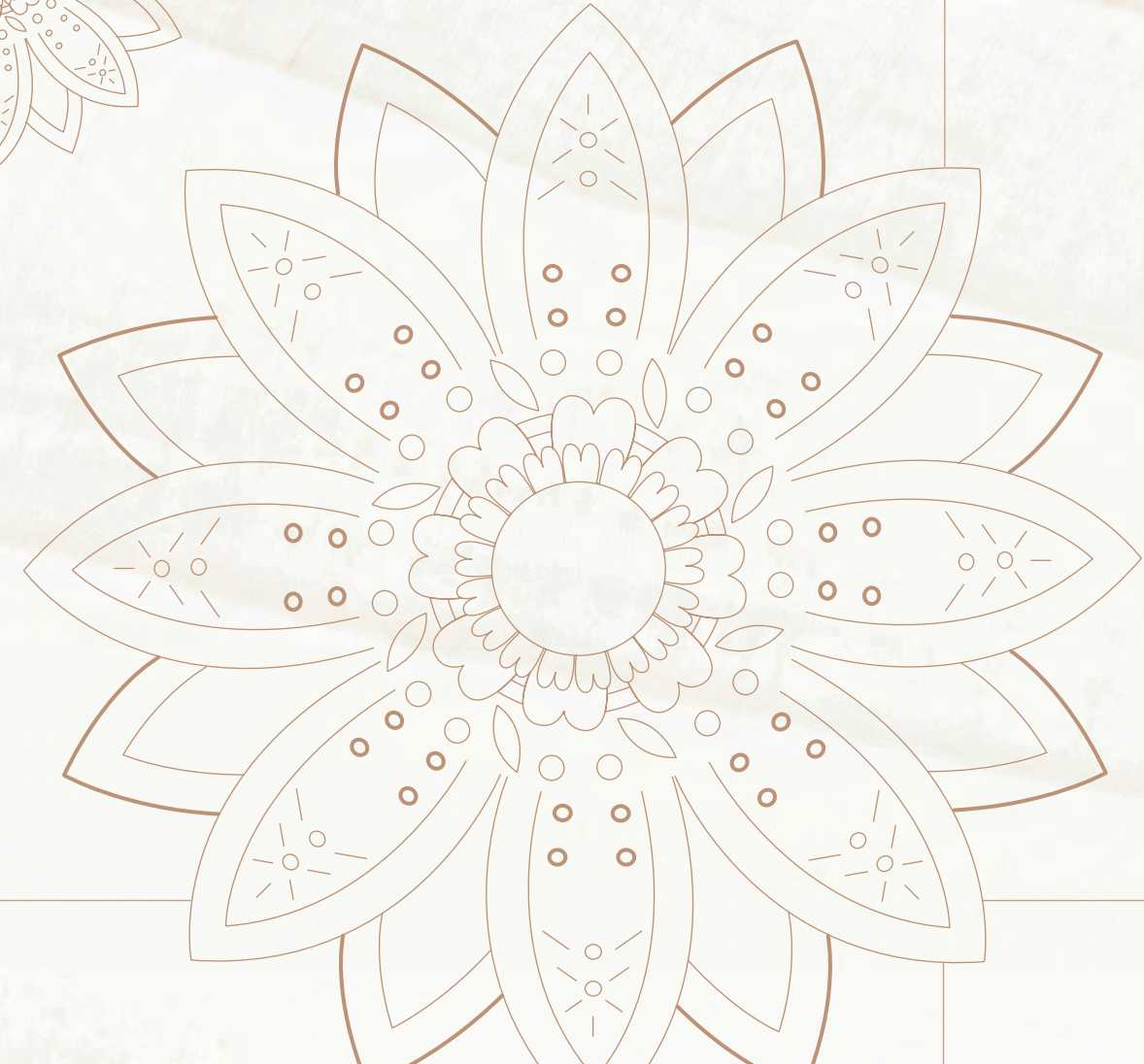
그는 안무가 ‘모리스 베자르’의 이야기를 꺼냈다. ‘무용수는 반은 복서고 반은 수녀여야 한다면서, 복서처럼 강한 면이 있어야 하는 반면, 수녀처럼 삭히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모리스 베자르의 이야기가 더 가슴에 와 닿는다고.

발레리노 김용걸의 춤에 대한 새로운 열망이 그의 앞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심리적 출렁임은 아마도 그 기간의 여정, 그러니까 국내 주역 무용수에서 파리의 견습생이 되고, 다시 솔리스트로 올라선 치열했던 시간들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다행히도 복서의 열정과 수녀의 심리를 견고하게 축적한 그는, 무엇을 선택하든 다시 자신을 굳건히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무모한 파리행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의 선택 또한 김용걸의 인생에서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S

에디터 박지현(프리랜서) 사진 박재형 메이크업 & 헤어 하은 & 최민(엔플로예 02-517-9111) 스타일리스트 윤인영 도움 주신 곳 series(02-6911-0771), ZARA(02-3413-9800)



우리나라 4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秋夕)은 음력 팔 월 보름을 일컫는다.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 자 8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의미의 추석은 한가위, 중추,  
중추절(仲秋節), 가배(嘉俳), 가배일,  
가위로도 불린다.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의  
중심인 추석 명절은 농작물의 풍요와  
풍작을 기원하고, 가을에 수확한 햇과일과  
햇곡식으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조상에게 예를 갖춰 차례를 지낸다.  
일 년 중 가장 크고 둥근 달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는 만월 추석을 맞다.





# 만월 추석음 맛다





#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처럼

가을을 깊이에 따라 구분한 '삼추(三秋)'는 맹추(孟秋, 음력 7월), 중추(仲秋, 음력 8월), 계추(季秋, 음력 9월)를 아우르는 말이다. 가을의 한가운데인 중추, 거기서 또 한가운데인 15일이 바로 보름달 휘영청한 중추절, 우리말로로는 한가위다. 추석에 대한 여러 기원과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 선조들이 즐겼던 한가위 풍속을 알아본다.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의 옛말이니 한가위는 말 그대로 '큰 가운데달'을 의미한다. 해마다 계절에 따라 순환하는 농사는 다달이 차올랐다가 기우는 달의 속성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가위는 정월 보름에 시작되어 팔 월 보름에 마무리되는 일 년 농사의 대단원이었으며, 풍성한 가을걷이를 자축하는 공동체의 축제였다.

### 유전자에 새겨진 기억

한민족의 한가위 풍습은 '추석'이라는 말이 쓰이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팔 월 보름을 일컫는 이름들 중 가장 오래된 건 가위의 이두식 표기인 '가배(嘉俳)'다. 12세기 증엽에 편찬된 <삼국사기> '유리왕' 편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왕이 육부(六部)를 정한 후 이를 두 패로 나누어 왕녀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내(部內)의 여자들을 거느리게 하여 편을 짜고, 7월 16일부터 날마다 육부의 마당에 모여 길쌈을 했는데 밤늦게야 일을 파하게 하고 8월 보름에 이르러 그 공(功)의 다소를 살펴 지는 편은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 사례하고 모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하였으니 이를 가배라 한다.' -<삼국사기> 1권 '신라본기' 유리왕

신라의 가배 풍습은 중국에도 일찌감치 알려져 있었다. <삼국사기>보다 훨씬 먼저 출간된 7세기의 <수서(隨書)>에 신라의 팔 월 보름 풍습이 언급되어 있고, 10세기의 <구당서(舊唐書)>에도 비슷한 대목이 나온다. '8월 15일이면 왕이 풍류를 베풀고 관리들을 시켜 활을 쏘게 하여 잘 쓴 자에게는 상으로 말이나 포목을 준다.' -<수서(隨書)> '동이전(東夷傳) 신라조(新羅條)

여자들이 패를 나누어 길쌈을 했다는 것은 한가위가 가을걷이 축제의 차원을 넘어 다가올 겨울 의복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음을 보여준

다. 옷감 짜는 풍습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땅의 모든 세시풍습이 농경문화를 반영하여 생겨났음을 감안하면 세시 명절로서의 한가위는 일찍이 고대 농경 시대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일반화되어 정착된 게 바로 신라의 가배였다는 얘기도. 신라인들의 가배 풍습은 떠나면 이국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9세기의 일본 승려 원인(圓仁)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는 당시 중국 산둥(山東)에 살던 신라인들이 인근 사찰에서 가배 명절을 즐겼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어느 땅 어느 바다에 머무르든 신라인들은 그렇게 팔 월 보름달 밑에서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이다.

고려 시대에도 추석은 중요한 명절로 여겨져 설, 대보름, 한식, 단오, 동지 등과 더불어 '9대 속절(俗節)'에 포함되었다. 조선 시대엔 설날, 한식, 단오와 더불어 4대 명절의 하나로 꼽혔다. 근대 이후 그 전통적 성격이 차츰 축소되어 지금은 차례와 성묘 풍습만 남아 있지만, 한민족 대표 명절로서의 위상만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농경민족의 유전자에 새겨진 팔 월 가배의 기억만은.

### 감사와 예축이 담긴 풍습들

조상들에게 성묘하고 햇곡과 송편으로 차례를 올리는 것 외에도 한가위엔 다양한 놀이들이 풍성하게 열렸다. 강강술래, 줄다리기, 씨름, 가마싸움, 소놀이, 거북놀이, 소싸움 등등. 그 모든 것들은 놀이인 동시에 의례였고 잔치인 동시에 기원이었다. 이른 아침 엄숙한 의례로 시작된 한가위는 온종일 이어지는 시끌벅적한 놀이를 거쳐 보름달 밑에서의 운치 있는 군무로 마무리되곤 했다.

감사와 기원이 동시에 담긴 의례들 중에 '올개심니'와 '꽃바심'이 있다. 호남 지역에서 널리 행해졌던 올개심니는 올벼, 즉 일찍 수확한 벼를 조



추석에는 차례도 지내고 절사도 지낸다. 햅쌀로 밥을 짓고 술을 빚으며, 송편을 만들어 차례를 지낸다. 추석 차례는 가을 수확을 통해 얻은 햇곡식을 조상에게 먼저 친신하고자 하는 의미가 강하다. 차례가 끝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절사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다. 제사를 지낼 때 향로 옆에 놓는 그릇으로, 사발에 모래를 담아 띠 묶음을 꿸고 그 위에 술을 붓는 데 사용하며 '모사기(茅沙器)'라 부른다. 19세기 조선 시대 <백자제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씨름은 예부터 선조들이 즐기던 민속놀이이자 운동경기다. 특히 추석 명절 전후로 읍내에서는 사내들을 대상으로 씨름 대회를 개최하곤 했는데, 씨름은 고려 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로 넘어오며 대중화되었다. 씨름은 단오와 추석에 성행하였고, 농사일이 한가해지는 가을 추수를 마친 추석 전후로 고된 몸과 여유를 즐기고자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대표 풍속화가인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상에게 올리는 풍습이다. 벼가 덜 여물었을 땐 여문 부분만 골라 찢고, 미리 솥에 볶아서 말려 두었다가 밥을 짓는다. 미리 베어온 벼 포기는 안방 윗목 벽에 가로 묶어두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집에서도 벼 포기를 사다가 걸어둘 만큼 보편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벼 이외에 수수, 조 같은 다른 곡식들의 이삭들도 함께 한 줍씩 베어 기둥이나 문설주에 걸어 두는데 이를 ‘올개심니’라고도 부른다. 올개심니한 곡식으로는 떡을 만들어 사당의 터주에게 올리기도 하고, 이듬해 봄에 씨앗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올해의 풍년에 감사하며 이듬해의 풍년을 예축(豫祝)하는 농경 민족 특유의 풍습들이다. 풋바심은 영남 지역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논 한가운데 누렇게 잘 익은 벼를 한 짐가량 미리 베어 탈곡하는 것을 말한다. 그 쌀로 밥을 짓고 제사를 올리는 건 올개심니와 다를 게 없다. 또 다른 재미있는 풍습으로 충남에서 성행하던 ‘반보기’가 있다. 인근 고을에 흩어져 살면서 여름내 농사짓느라 바빴던 일가친척들이 한가위 때 양편의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절반씩 가서 만난다 해서 반보기인데, 다른 말로는 ‘중로상봉(中路相逢)’ 또는 ‘중로보기’라고도 한다. 반보기는 출가한 여인들이 친정 식구와 만나는 모처럼의 기회이기도 했는데, 한가위 전후엔 아예 ‘온보기’로 새색시들이 근친(觀親, 시집간 딸이 친정에 가는 것) 가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고 한다. 한가위 풍습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송편이다. 정월에도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송편은 역시 가을에 먹어야 제맛이다. 봄 송편이 갓 돌아난 솔잎으로 묵은쌀의 향기를 새롭게 한다면 가을 송편은 거꾸로 햅쌀의 신선함이 솔내를 한층 맑게 해 준다. 송편의 이름은 함께 넣는 재료나 떡의 크기, 생김새에 따라 다양한데 한가위 때 햅쌀로 빚은 송편은 특별히 ‘오려송편’이라고 부른다. 올벼로 만든 송편이라는 뜻이다.

**보름달 밑에서 주고받던 말**

중추가절(仲秋佳節). 한가위 무렵은 농민들에게 더없이 좋은 계절이다. 오죽하면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을까. 덩그러리가 마를 날 없던 봄여름과 달리 이때쯤엔 농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힘도 덜 들고 마음도 사뭇 여유로워진다. ‘옷은 시집을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이나 ‘한가위엔 가난한 집 며느리도 배탈이 난다’는 옛말들 속엔 한가위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담뱃배어 있다. 한가위를 맞는 옛사람들의 태도는 송편의 생김새에서도 드러난다. 보름달이 뜨는 날인데 왜 반달 모양의 떡을 만들었을까? 보름달은 이내 기울지만 반달은 서서히 차오르면서 이윽고 보름달로 바뀔 터, 송편의



생김새는 곧 ‘내일의 희망’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떠들썩한 명절에도 마냥 뜰드는 것을 경계하던 웅승깊은 마음이 그 속에 있다. 공동체의 축제였던 만큼 조상을 챙기는 제사와 이웃 돌보기에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이천 지방의 민속놀이인 ‘거북놀이’는 거북등 모양으로 엮은 수수잎을 등에 지고 마을을 돌며 햇곡식들을 모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는 풍습이다. 오늘날의 한가위가 ‘가족’이나 ‘혈연’이라는 종적 관계에만 치우치는 것과 달리, 옛사람들은 ‘이웃’이라는 횡적 관계를 다지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자연을 우러르고 조상과 이웃을 살뜰히 살피며 즐거움과 소망을 나누던 날, 많고 많은 명일과 축일들 속에서 한가위가 단연 으뜸일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환한 만월(滿月) 밑에서 만백성이 주고받던 그날의 덕담을 <열양세시기>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 같기를(加也勿 減夜勿 但願長似嘉俳日)” S

에디터 김미경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 한가위에 입는 우리 한복

한가위가 되면 '추석빔'이라 하여, 한복을 입는다. 새로 만든 한복을 차려입고, 격식과 예를 지키고자 차례와 성묘를 지냈고, 집안 어르신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렸다. 엄격한 사회상을 반영해 온몸을 감싸면서도 격식과 방한의 목적을 두루 지닌 한국 전통미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진짜 한국인의 옷이다.

### 저고리

한복의 기본 상의인 저고리는 길과 소매, 깃, 동정, 고름으로 구성된다. 시대를 거듭하며 디자인이 변화한 저고리는 삼회장, 반회장, 민저고리로 나뉘며, 삼회장은 가장 화려하면서도 높은 격식을 나타냈다. 저고리는 한복린.

### 여인이 곱다

여인들의 한복은 저고리와 치마가 기본이다. 상박하후(上薄下厚)라 하여, 저고리는 좁고 치마는 풍성하게 입는 것이 특징. 이로 인해 여인의 한복은 곡선과 직선미가 조화를 이루며 단아한 매무새를 더해 준다. 속적삼, 바지, 단속곳, 속치마를 입고 그 위에 저고리와 치마를 착용하였으며, 저고리 고름의 색을 달리해 기혼과 미혼을 구분하고 나이를 가늠하였다.

저고리와 노리개. 꽃신은 차이 김영진. 치마와 자수가 놓인 땡기는 한복린.



### 멋을 즐기다

남자는 바지와 저고리가 일상복의 기본이 된다. 허리띠와 대님을 매고 조끼나 마고자, 두루마기를 걸친다. 남자의 저고리는 등 전체를 덮을 정도로 길이가 길고 고름이 긴 것이 특징. 한복 바지는 좌식생활을 고려해 품이 넉넉하게 디자인하였고 움직임 때 편안하다.

저고리, 바지는 한복린, 신발은 담연.



### 마고자

저고리 위에 입는 덧옷. 본래 마괘자(馬褂子)라 하였고 저고리와 비슷하지만 동정이 없고 앞자락을 맞댄 것이 특징이며 오른쪽 자락에 단추를 달고, 왼쪽에는 고리를 달아 끼워 입는다. 본래 만주인의 옷에서 시작된 마고자는 비단이나 호박 등 화려하게 만들어 따뜻하면서도 멋스러워 남자들이 방한용으로 입었다.

연보라색 마고자는 담연.



**도 포**

상의와 하의를 따로 만들어 허리에 연결시킨 포(袍)의 일종인 철릭. 포는 남성이 외투로 입었던 모든 겹옷을 의미하는 도포(道袍)에서 온 말로, 두루마기도 이에 속한다. 철릭은 조선 시대 무사들이 겹옷으로 입었고, 단오에는 홉겹으로, 추석에는 두 겹으로 지어 입었다. 여기에 숨을 넣어 방한 기능을 더하기도 했다. 황토색 철릭은 담연

**예 를 지키다**

격식과 예를 지키기 위해 남성들은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고 그 위에 두루마기와 쾌자, 갓을 썼다. 쾌자는 군복의 하나로 왕족을 제외한 남자들이 겹옷 위에 입은 것으로, 소매와 삶이 없고 옆과 뒤에 트임이 있어 활동하기 편하며 허리를 묶을 수 있게 했다. 어깨를 감싸는 길이의 담호와는 차이가 있다.

쾌자, 바지, 신발은 모두 한복린 세조대와 같은 담연



### 강강술래를 돌다

좁은 폭과 배래가 긴 저고리, 풍성한 치마로 조선 시대 여인의 한복은 길고 풍성한 느낌을 드러냈다. 치마 속엔 무지기라는 속치마를 몇 겹씩 겹쳐 입었고, 배자나 마고자, 두루마기를 입고 노리개와 땡기, 장신구를 화려하게 치장한 후 외출을 했다. 특히 여인들의 바깥 외출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던 추석 명절엔 곱게 차려 입은 여인들이 강강술래와 같은 명절 민속놀이를 즐겼다.

저고리와 치마는 담연, 와인 색 배자와 꽃신은 한복린, 노리개는 차이 김영진



### 노리개와 땡기

저고리 고름이나 치마허리에 차는 부녀자들의 장신구인 노리개. 노리개는 조선 시대 여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장신구로 사치로 여기기보다 부덕(婦德)의 소치였다고 알려져 있다. 매듭으로 엮거나 색실이나 금실가락지를 끼우고 무소뿔로 장식했으며, 팔 월 추석부터는 삼작노리개를 착용했다. 머리 장신구인 배씨땡기는 어린 여자아이를 위해 만든 것으로 가르마 중앙에 꽃아 사용했다.

자수가 놓인 노리개와 머리 장신구 모두 담연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고경은 도움 주신 곳 담연(02-546-6464), 차이 김영진(02-333-6692), 한복린(02-517-6830)

## 여인들의 기원을 담은 춤, 강강술래

농경민족에게 달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해가 노동이라면 달은 휴식이요, 해에서 활력이 솟는다면 달엔 정한(淸閑)이 깃들었다. 음산함을 풍기는 서양의 달밤과 달리 우리의 달밤은 늘 그윽하면서도 애뜻했고, 휘영청 떠오르는 만월(滿月)은 그 모든 사연들의 결정체였던 것.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 <정읍사>라는 백제 여인의 기원이 담긴 그 달이 바로 한민족의 달이다.

보름달은 아름다움의 상징으로도 쓰였다. ‘화용월태(花容月態)’나 ‘월궁항아(月宮姮娥)’라는 표현에 등장하는 달이 반달이나 그믐달이었을 리는 없다. 혼기가 찬 규수에게 건네는 ‘달덩이 같은 얼굴’ 역시 마찬가지다. 신라 화랑 기파랑을 기린 <찬기파랑가(讚耆婆郎歌)>속의 달 또한 초승달은 아니었을 터, 보름달은 남녀를 불문하고 빼어난 이에게 건네는 최상급의 찬사였던 셈이다.

보름달 얘기를 하자면 한가위를 빼놓을 수 없다. 햇곡식 풍성한 가을 들녘 위에 보름달이 떴으니 그 정취가 오죽했을까. 한가위 대표 풍습인 강강술래의 노랫말엔 그 밤을 즐기던 옛사람들의 흥이 오롯이 담겨 있다. ‘해는 지고 달 떠오른다 강강술래/ 하늘에다 베를 놓고/ 구름 잡아 잉에 걸고/ 달을 잡아 북 만들고/ 별을 잡아 무늬 놓고/ 껌까껌까 잘도 쥘다…….’

달빛 흩뿌러지는 들녘에 흐르던 이 낭만적 노래 속엔 우주보다도 넓은 시심(詩心)이 그득하다.

사실 강강술래는 놀이 자체가 달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예부터 달은 풍요와 다산이라는 여성성의 상징이었으며 둥근 만월은 종종 만삭의 여인에 비유되곤 했다. 수확이 한창인 가을 들녘, 환한 보름달, 그리고 그 달의 형상처럼 둥글게 펼쳐지는 여인들의 원무(圓舞). 놀이의 무대와 배경과 주체가 모두 달과 관련된, 온갖 상징들로 겹겹이 둘러싸인 농경민족의 향연이 바로 한가위의 강강술래였던 것이다.

기원에 관해서는 다양한 설이 전해지는데 그중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것도 있다. 해남 우수영에 진을 치고 있던 이순신이 부녀자들에게 남장을 시켜 산허리를 빙빙 돌게 했고, 이를 본 왜군이 대규모 병력의 행군으로 오인하여 퇴각했다는 것. 강강술래가 전남 해안 일대에서 특히 성행했다는 점, 한자 표기가 ‘强羌水越來(강강수월래 :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라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보름달과 관련된 세시풍속들이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감안하면, 고대부터 이어져 오던 민속놀이를 이순신이 지혜롭게 활용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노랫말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전해지지만 대개는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목청 좋은 여인이 맨 앞에서 메기는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라는 후렴구를 넣는데, 부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표현들이 등장하곤 했다. 느릿한 진양조로 시작된 노랫가락은 차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로 이어지고 뛰는 속도도 그에 맞춰 빨라진다. 한바탕 뛰다 지치면 서서히 속도를 늦추며 숨을 고른다. 차고 기울고 다시 차고 기우는 달처럼 휘몰아치다가 찾아들기를 되풀이하며 밤새 이어지던 춤과 노래. 그 여인들로 인해 가을밤은 더욱 풍성하고, 한가위의 달빛은 더욱 교묘했을 것이다. S

에디터 김미경 글 박경수



辨秀

雪花秀

### 스킨케어의 모든 성분을 감싸주어 맑은 윤기로 기품 있는 인상을 만든다

맑은 윤기가 흐르는 피부는 인상까지 달라 보이게 합니다  
스킨케어의 효능 성분을 피부에 단단히 지켜주는 설화수 미안피니셔-  
설화수만의 녹삼효™ 성분이 스킨케어 효능을 극대화해주고  
피부를 감싸는 보호막이 되어 스스로 빛나는 맑은 윤기를 완성합니다  
현명한 스킨케어 마무리로, 맑은 윤기가 만드는 인상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미안피니셔

# Sulwhasoo



Sulwhasoo  
LUMINATURE  
ESSENTIAL FINISHER  
미안피니셔

# 靑을 품은 자연의 아름다움

깊고 푸른 청빛이 하늘에 쏟아져 가득 채우니 높고 장엄한 가을의 위상에 절로 눈물이 흐른다. 만물이 생동하는 자연과 성장하는 나무를 의미하는 오방색 중 청색은 가을 하늘 속에, 청자의 빛 속에 담겨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었다. 당나라 시인 시견오는 푸른 청빛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노래했다. '파란 하늘의 끝을 재니 만길 샘물을 쏟아부은 것 같구나. 흰 비단 한 가닥 펼쳐진 구름은 한낮 가을 하늘에 걸쳐졌구나.' 이것이 곧 가을 청빛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한구(다큐멘터리 사진가)

가  
을  
하  
늘  
이  
순  
백  
한  
청  
색  
에  
담  
겨  
어

우리 선조들은 예부터 초록, 남색, 감색 등 파란빛을 띤 색을 통틀어 청(靑)이라 불렀다. 청색(靑色)은 자연을 중심으로 한 음양 오행 사상에서 탄생한 오방색의 하나로, 구름 한 점 없는 순백의 청빛 가을 하늘을 닮았다. 귀신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색이라 여긴 청색은 미래에 나타날 좋은 길운을 의미하여 '청운'이라는 말로도 사용하였으며, 왕족이나 정치가 등의 의복에 새겨 신비롭고 영험하다 여겼다.

Our Korean ancestors collectively referred to green, dark blue, and navy blue as 'Cheong' (blue). This color is one of the Five Colors from the Philosophy of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s and resembles the pure blue color of the autumn sky. It was thought to drive away devils and wish for a good fortune. 'Cheongwoon' was a term used to refer to a good fortune and was embroidered onto the wardrobes of members of the royal family or politicians so that they could benefit from its miraculous powers.









나무와 하늘이  
달아날수록  
이루니

초록빛을 띤 푸른색을 녹청색(綠靑色)이라 부른다. 청록과 파랑의 중간색으로 우리 눈에 가장 편안함을 주는 색인 초록색을 담고 있어, 편안하고 청량한 느낌마저 준다. 녹청색은 사파이어나 근청석, 크리소콜라 등의 광물에서 엿볼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낸 천연의 색으로, 각종 보석과 공예품을 만들어 사용하였고 과거엔 심신에 차분함과 안정감을 준다고 믿었다. 또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삼림 속 나뭇잎이 깊고 푸른 녹청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The greenish-blue color is known as 'Nokeheong.' It is between bluish-green and blue, and has a hint of green, which is most comfortable and cool to the eye. It is a natural color found in sapphire, cordierite, and chrysocolla, which were used in ancient Korean history to make jewelry and craft items. It was believed that this color calms the body and mind. A deeper greenish-blue is also seen on leaves deep in the woods.



남색이로 가을이 더욱 깊어진다

깊은 남색의 물 위에 보라색 꽃잎이 지니 완전한 가을색이 드리운다. 짙은 쪽빛에 물들어 청색과 자색의 중간 빛을 띤 색이 남색이다. 남색(藍色)은 청색에서 가장 어둡고 무거운 색으로, 후퇴와 수축을 의미하지만 정화와 해독을 의미하기도 한다. 조선 태종 때까지는 고려 시대의 영향을 받아 신분에 따른 구별이 엄하지 않아 모든 관리에게 짙은 남색 옷이나 검붉은 옷을 입도록 장려했다.

The true color of fall is cast with purple petals on the dark-navy waters. Navy is stained by dark indigo and comes in between blue and purple. It is the darkest and heaviest color in the blue family and depicts recession and contraction, but it also means purification and detoxification. Influenced by the Goryeo Dynasty, all government officials were encouraged to wear dark blue or dark red clothing until the reign of King Taejong in the Joseon Dynasty.

# 단풍에 깃든 아름다움

산천초목 가득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드니 영락없는 가을이네. 단풍에 가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니 그것이 곧 여인의 고혹적인 아름다움의 비법이라.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 가을아침에 보는 거울

- 설직(薛稷)

나그네 마음이 지는 앞에 놀라  
밤새워 앓은 채로 가을바람 소리를 들었네.  
아침이 되어 내 얼굴을 비추어 보니  
내 생애가 그대로 그 거울 속에 있네.

### 자음생 진분유

인삼 종자유가 피부 방어력을 높여줘 노화 대응력이 강한 피부로 다스려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 향산화 효과가 뛰어난 동백유 성분이 윤기가 살아 있는 맑은 안색으로 가꿔준다.

### The Mirror in the Morning of Autumn

- Seoljik

A wanderer was startled by the fading leaf  
and was up all night, listening to the winds of autumn.  
As I look at myself in the mirror in the morning,  
I find my life right there in the mirror.



## 가을에 취한 날

- 두보(杜甫)

옥 같은 이슬에 단풍 숲이 잠들고  
무산과 무협엔 가을 기운이 쓸쓸하게 자리했다.  
강의 물결은 하늘에 뒤질세라 솟구치는데,  
변방의 바람과 구름은 땅을 덮어 어둠이 내리네.  
우거진 국화가 피니 옛날처럼 눈물짓고,  
외로운 배는 고향 갈 마음에 멈춰서네.  
곳곳마다 겨울옷 마련하느라 바느질 재촉하는데,  
높은 백제성 해 질 녘의 다듬이 소리는  
빠르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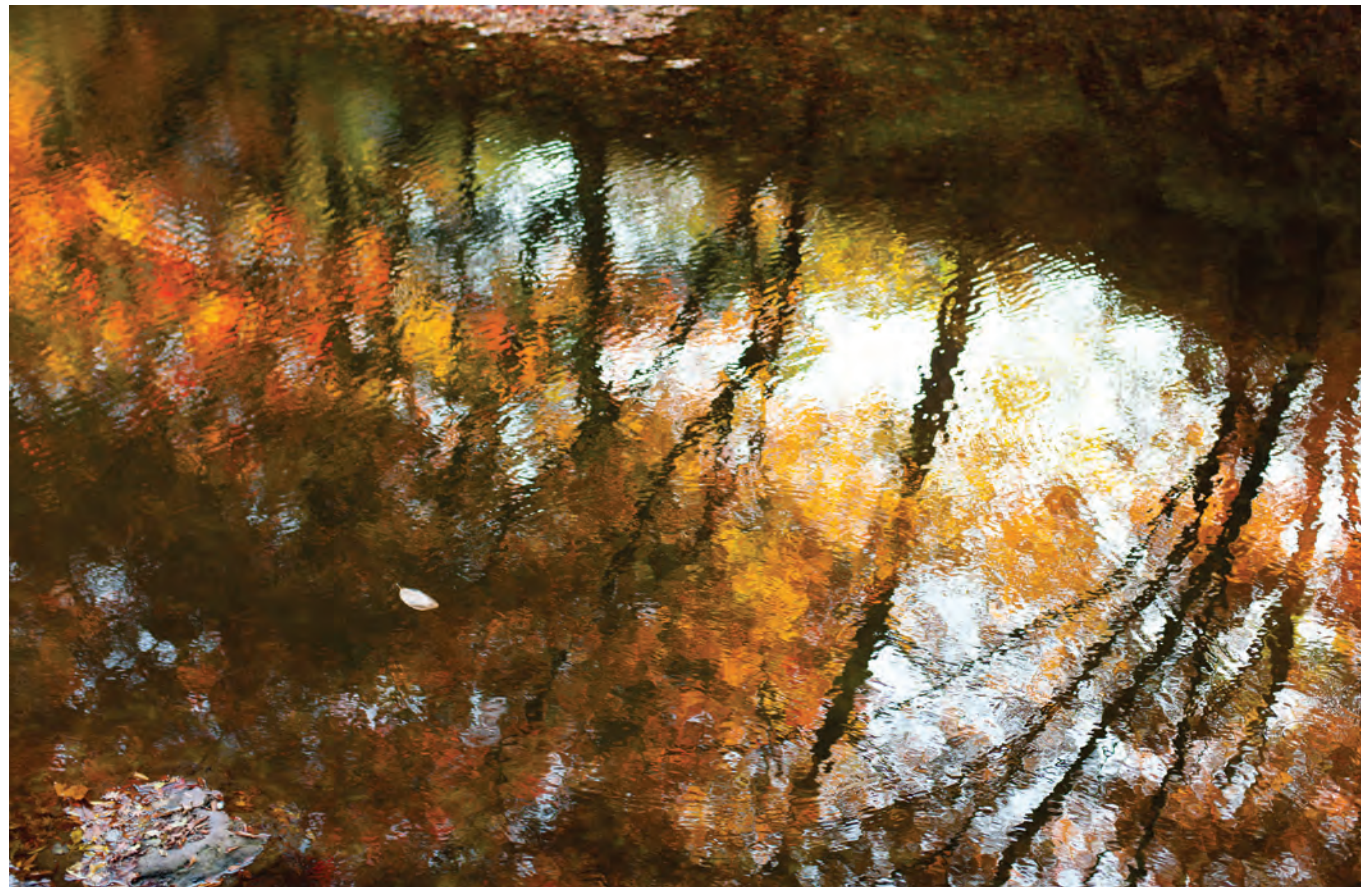
### 윤조에센스

피부에 닿는 순간 깊고 빠르게 흡수되어 촉촉한 마무리감을 선사해, 다음 단계에 바르는 제품들의 효과를 높여주는 한방 에센스. 피부에 좋은 각종 한방 성분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하고 윤택한 피부로 완성해 준다.

### Drunken with Autumn

- Dubo

The autumn forest sleeps in the jade-like dews,  
and the lonely spirit of autumn has come to the mountain and valley.  
The waves of the river spring up to compete with the sky,  
but the winds and clouds of the outskirts cover the land to cast darkness.  
The chrysanthemums bloom and I shed tears, as in the old times.  
The lonely boat stops, longing to go to the hometown.  
There are people sewing everywhere to prepare for the winter,  
but the sound of fulling continues so fast in the high castle of Baekje at dusk.





La Flamme  
la mieux habillé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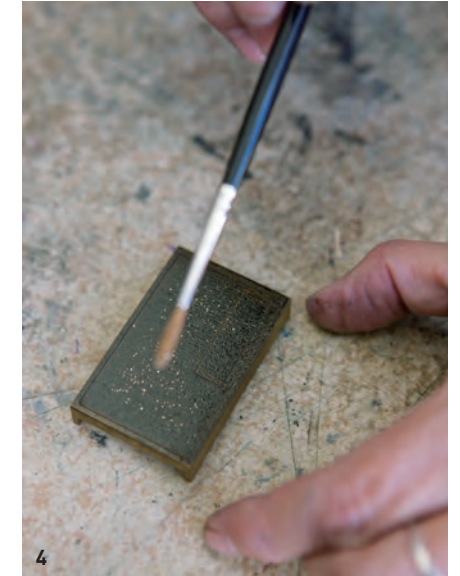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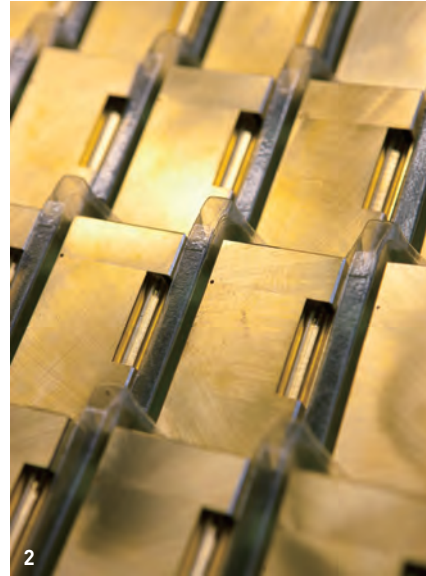
## 뛰어난 불꽃의 상징 에스티듀퐁(S.T.Dupont)

에스티듀퐁 창립 140년 세월, 아라비스 산맥 밑에 위치한 에스티듀퐁의 파베르쥬(Faverge) 아플리에에는 금·은 세공술로 조각을 하고, 천 년의 비밀을 간직한 세련된 방법의 옷칠을 입혀 라이터와 펜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3

1 원저공에게 영감을 얻은 1950년대 라이터 광고 포스터. 2 중국 옷칠로 장식된 시가 상자는 시가 장식 고리를 금속으로 만들었다. 모든 시가 박스 안쪽은 삼나무 또는 마호가니로 장식되었으며, 습기 제거기가 부착되어 있다. 3 마무리 작업 중인 일반 볼펜



에스티듀퐁 이탈리아의 시작은 1875년 이후 티소듀퐁(Tissot Dupont) 가문의 사보이 왕족 시대부터다. 1941년 이후에는 라이터를, 1973년 이후부터는 펜을 제작하기 시작했다. 에스티듀퐁 디자이너들이 작은 수를 놓아 만든 액세서리는 작품의 수준을 뛰어넘는, 평생을 보증하는 보석이라 말할 수 있다. 장인정신 속에 녹아 있는 인내와 끈기에 정해진 시간이란 없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펜대가 종이 위에서 마치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착각이 들 것이며, 그리고 라이터 불꽃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에스티듀퐁은 라이터 덮개를 열 때 잘 열리는지, 은은하게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테스트를 진행한다. 이를 '클링 사운드(Cling Sound)'라 하는데, 에스티듀퐁의 상징으로도 유명하다.

#### 범접할 수 없는 장인의 손길로 탄생

클래식한 펜과 더불어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듀퐁 라이터의 탄생 과정은 왕의 호사스러운 주문에 의한 것과 견줄 만하다. 수년간 장인들에 의해 조립되고 광택을 내는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에 피라미드 형태로 노끈을 꼰 모양의 문양과 조각을 새기도록 했다. 그리고 장인들은 자신의 작품에이니셜을 새겨 넣었다. 듀퐁 라이터 1개는 70개의 서로 다른 부품을 가지고 600번의 제작 과정을 거쳐 4~6개월에 걸쳐서 제작되며, 하나의 펜 제작에는 150개의 부품이 사용된다. 이렇듯 길고 지난한 제작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장인들은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

#### 살아 있는 소재라 불리는 '옷칠'의 완성미

라이터 장치의 정밀함이 인간미와 대조를 이루어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또한 라이터 가공에 옷

1 옷칠된 나무 위에 피라미드 형태의 문양을 새겨 넣은 팔라듐으로 장식한 라이터. 2 완성 전 기본 황동 라이터. 3 에스티듀퐁은 설립 140년을 기념하기 위해 옐로 골드로 제작된 험프리 보가트 한정 컬렉션을 발표하였다. 이 컬렉션에는 아주 오래된 보리 곡물 문양과 보가트의 실루엣이 담겨 있다. 4 중국 옷칠 라이터. 붓을 사용하여 금가루 입자를 분산시킨다.



1



2



3

철 기법을 응용하여 잉크가 새지 않고, 깨지지 않도록 보호하였다. 옷칠은 살아 있는 소재로 간주될 만큼 착색과 응용 기술에서 탁월한 장인의 솜씨를 필요로 한다. 옷칠은 충격에 강하고, 흠집이 잘 나지 않으며, 잘 부서지지 않도록 한다. 옷칠 한 그릇에 해당하는 진액을 얻기 위해선 60개 이상의 나무가 필요하다.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중국 옷칠뿐만 아니라 노란색과 흰색 혹은 분홍색 금, 진주, 다이아몬드, 악어 가죽, 일반 가죽 및 팔라듐으로 완성한 제품들은 럭셔리 의 경계를 허물며 행진하는 것처럼 보인다.

#### 권위 있는 한정판

에스티듀퐁은 주얼리 아티스트 필립 투르네르(Philippe Tournaire)와 세상에 존재하는 건축 기호를 기념하는 장신구 작업을 함께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칼 라케펠트와 함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른 것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색상을 입힌 디자인 장식 몽듀퐁(Mon Dupont) 라인을 창조했다. 에스티듀퐁의 카탈로그 제품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 있는 한정판 시리즈를 지향한다. 2011년 '희망과 마술(Hope et Magic Wishes)' 컬렉션은 체리나무 꽃이 만개한 나뭇가지로 장식, 빨간색 옷칠로 멋을 더한 라이터와 팔라듐으로 마감 처리된 실버 파우더에 검은 옷칠을 입힌 라이터로 대표된다.

소중한 게츠비(Gatsby) 라인은 로듐으로 마감 처리한 스텐과 18K 골드도 만들어진 만년필이다. 험프리 보가트(Humphrey Bogart) 라인은 보리를 노끈처럼 끈 모양의 문양을 새긴 장식이 특징이다. 이 아름다운 펜은 프랑스 정부가 애용하는 선물로 각국 국가원수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 S

에디터 신현화 번역 말과글 글 아그네스 베누와(Agnes Benoit) 사진 장-마크 팔리스(Jean-Marc Palisse)

1 라이터 불꽃 높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유명한 클링(Cling) 테스트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 중국 옷칠과 팔라듐으로 처리, 피라미드 형태로 장식된 '리안' 라이터 시리즈. 3 중국 옷칠 라이터. 4 주얼리 아티스트 필립 투르네르가 디자인한 청동으로 된 성 바실리와 성모 마리아가 새겨진 사무실 펜. 구매자 주문에 의한 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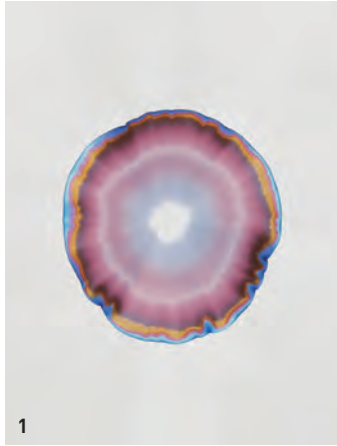




## 젊은 작가들의 매혹적인 상상력

3인의 세계적 아티스트 트리오의 전시가 대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전은 인공적인 기술을 동원해 인간의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 조각,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환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들이 새로운 세상과 시선으로 이끈다.





1 동심원 형태의 다채로운 색깔로 변해나가는 과정을 담은 〈Small Bang〉, 2 사시각각 변화하는 구름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4천638개의 반짝이는 원형 플립장터들이 뒤집히며 구현해낸 〈Cloud〉, 3 형형색색의 빛줄을 물줄기처럼 격렬하게 뿜어내는 분수를 재현한 〈Persistent Illusions〉, 4 존재하지만 믿을 수 없는 것과 존재하지 않지만 믿을 수 있는 것 사이의 질문을 제안한다는 작품 〈Arcades〉.

미술은, 무엇인가를 새롭게 보여주고 다시 보게 한다. 좋은 미술 작품은 낯설고 다소 불편하면서도 기이하고 환상적인 체험을 안겨준다. 그것은 상투적이거나 관습적인 시선을 반성하게 하거나 그로부터 벗어나 다른 시각으로 사물과 대상을 바라보고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미처 보지 못했던 존재의 비밀을 깨닫거나 사물과 세계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된다. 현대미술은 바로 그러한 시각적, 감각적 체험을 안겨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이전의 미술이 특정한 이데올로기, 종교와 신화 등의 특정한 내용을 시각화하는 데 종사해왔다면 현대미술은 그와는 무관하게 한 개인이 보고 느낀 세계를 표현하는 일이 되었다. 정해진 답이 없게 된 것이다. 대신 하늘의 별만큼 다양한 작가들이 스스로 본 것, 꿈꾸듯 보고 싶었던 것, 환각과 환영, 환시 등을 그에 걸맞는 표현 기법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작업이 되었다.

당연히 재료나 방법론도 확장되고 다채로워졌다. 캔버스와 물감, 붓을 떠난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여전히 물감과 붓을 사용하는 이들 역시 이전과는 다른 시도를 감행하면서 회화를 새롭게 보여준다. 사진과 컴퓨터, 영상과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거나 첨단 산업 소재, 혹은 일상의 오브제를 과감하게 차용하는 일은 이제 보편적인 일이 되었다.

20세기 초부터 미술은 동시대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술의 발전이 미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몰고 갔다. 그래서 오늘날 미술은 주어진 세계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일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각 체험, 나아가 온몸의 신경과 감각을 자극하고 일깨우는 일이 되었다. 첨단 과학기술의 활용은 그 감각의 확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 영국 왕립 예술학교 출신 3인의 낯설고도 환상적인 초대

대림미술관에서 열리는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은 동시대 천재적인 아티스트 트리오라 불리는 '트로이카(TROIKA)'의 작품전이다. 코니 프리어(Conny Freyer, 독일), 세바스찬 노엘(Sebastien Noel, 프랑스), 에바 루키(Eva Rucki, 독일)로 구성된 트로이카는 영국 왕립 예술학교에서 함께 수학하며 만나, 런던을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들은 조각, 드로잉, 설치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흥미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환영을 야기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기계 장치나 전자 기기 등의 인공적인 기술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트로이카의 작업은 뉴욕 등지의 세계적인 미술관에서 전시되었으며 영구 소장되어 있다. 2010년 상하이 월드 엑스포(World Expo Shanghai)에서는 영국 출신이 아님에도 영국관을 대표하는 작가로 선정돼 8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에게 소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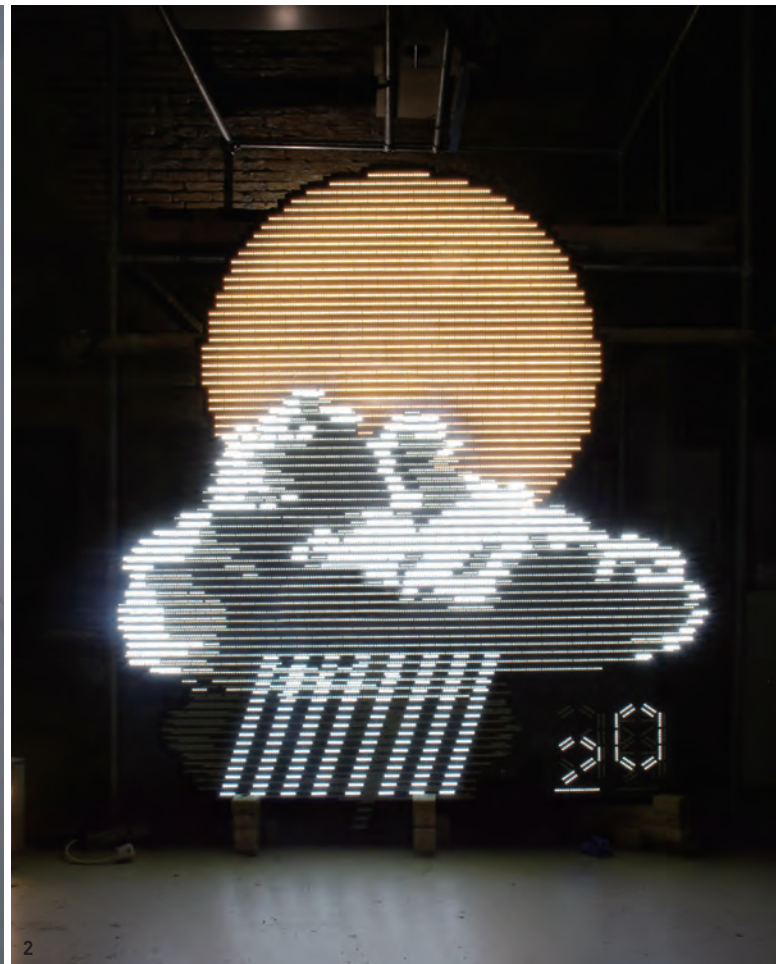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설치, 조각, 드로잉 등과 시간, 소리 등 매우 다층적인 요소들을 활용해 만든 다양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특히 여섯 가지 스토리(소리로 들어가다, 시간을 담다, 물을 그리다, 바람을 만지다, 자연을 새기다, 빛으로 나오다)를 통해 과학의 언어로 표현된 자연의 아름다움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한다.

트로이카의 작업을 간추려 말하자면 '인공적인 기술을 동원해 인간의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기존의 미술 전시와는 조금 다르다. 고정된 부동의 작품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종이와 유리, 조명과 영상, 동력 등이 어우러져 유동하면서 신비스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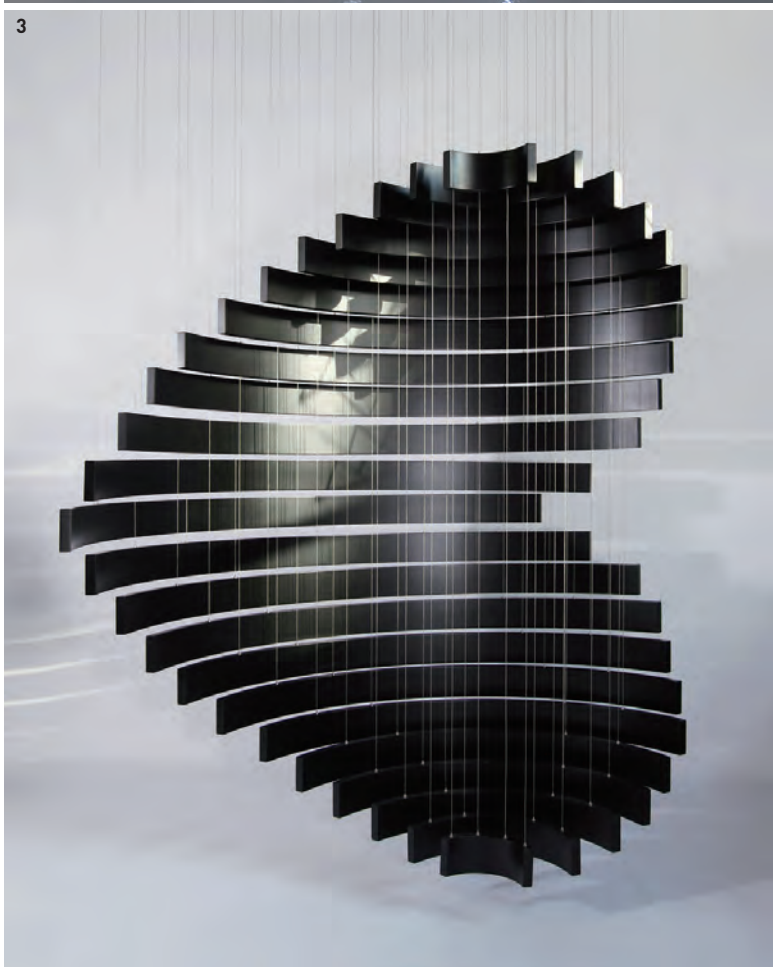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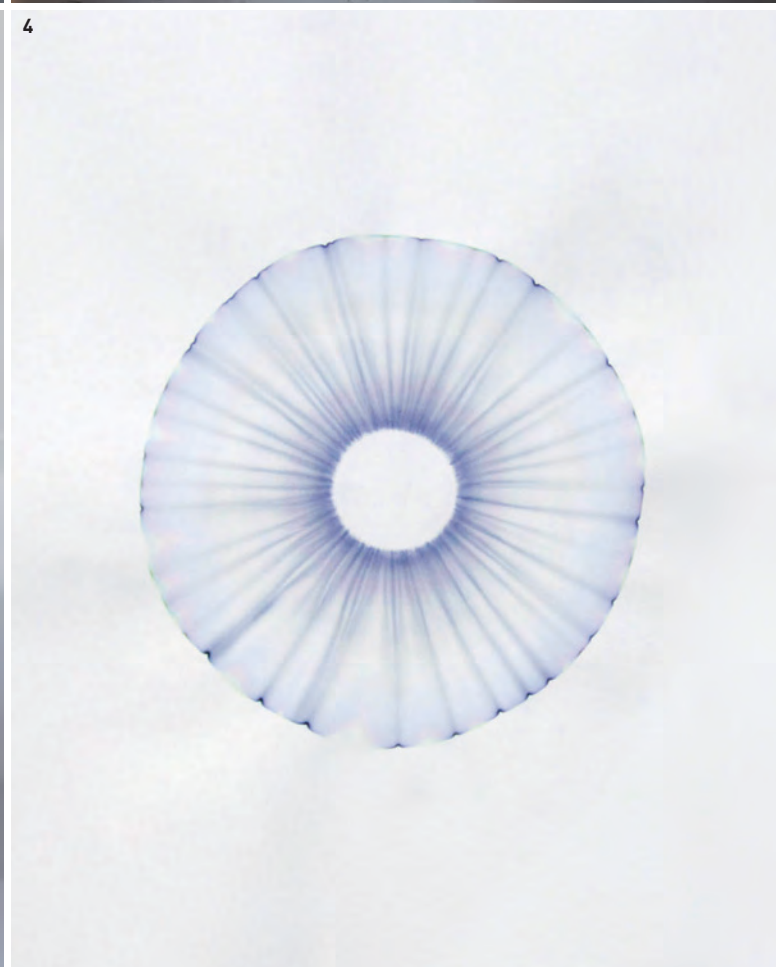
1



2



3



4



1 크리스털 프리즘들이 끊임없이 쏟아내는 빛의 수면 위를 걷는 경험을 제공할 (Falling Light), 2 내일만을 향한 기술의 발전에 (어제는 어떤 의미일까)란 질문을 던지며 지금의 관점에서 어제를 되돌아보는 (The Weather Yesterday), 3 사공간의 유한함을 시각화한 (The Sum of All Possibilities) 시리즈 중의 하나, 4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동심원 형태로 퍼져 나간 (Small Bang), 5 흑백 주사위를 이용하여 자연의 패턴을 쫓고자 까짐의 이진법적 디지털 방식으로 그려낸 (Calculating the Universe), 6 강력한 전기 불꽃이 흐르며 종이를 태운 흔적을 새긴 (Light Drawing).

분위기를 발산하는 작품들이 미묘한 공간을 연출한다. 그것을 설치 작업이나 영상 작업 혹은 인테리라고 부를지 애매하다. 아니, 그 모든 것이 두루 섞여서 진행된다.

각각의 전시 공간을 이동할 때마다 저마다 다른 재료와 빛, 오브제 등이 낯선 볼거리를 선물처럼 안겨준다. 관객들은 이상한 공간들을 여행하는 순례자가 된 듯하다. 조명(불빛), 오브제, 동력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이상한 장치들이 이토록 매력적인 볼거리와 환상적인 분위기를 발산한다는 점이 재미있다. 미술이란 것이 결국 재료(물질)를 통해 우리 몸에 자극을 주고 낯선 체험, 상상력과 환상을 야기시켜주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한다.

물론 이런 유형의 전시는 최근의 일반적인 설치, 영상 작업에 두루 해당하지만 트로이카는 특정 재료나 매체만을 다루거나 일관된 스타일, 주제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그야말로 일상적인 재료, 혹은 미술과 무관해 보이는 사물들을 종횡무진으로 끌어들이고 활용해 상상력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시각 체험을 안겨준다. 또한 그것이 미묘하고 신비로운 공간을 연출한다.

####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이슈를 확인

트로이카가 작업의 영감을 얻는 원천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고 한다. 이런 영감의 원천이 되는 영역들은 독서, 글쓰기, 수집 특히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면에서 발견되며 이것이 그들의 개념적인 콘셉트를 만드는 데 출발점이 된다.

또한 트로이카는 작업을 통해 관람객들이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을 느낄 수 있도록 권유한다. 공학적인 지식과 이성적 사고에 시각적, 공간적 체험을 더하여 인간의 감성적 경험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이들 트로이카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자신들만의 실험적인 제작 방식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을 듣는다. 과학과 예술을 교차시키고 기술과 감성을 융합한다는 것이다.

특히나 그들의 작업들은 한결같이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혹은 믿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 사이에서 의문을 제시하고 관객들로 하여금 경험과 상상을 통하여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참여시키고 작품과 관객 간의 관계성을 적극 도모한다는 얘기다.

이번 전시에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 설치하여 크게 주목받은 <Cloud>와 '2010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스와로브스키(Swarovski)와의 협업 작품 <Falling Light>가 국내 최초로 소개된다. 올 연말에 서울의 한 공공장소에 설치될 <The Sum of All Possibilities>도 미리 공개한다. 한편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에 육박하며 주목받은 대표작 <Cloud>는 이번 한국 전시를 위해 특별 제작되었다고 한다.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전시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과 이슈를 가장 실감나게 보여준다. 한편 오늘날 미술이 당대의 테크놀로지와 적극적으로 만나는 동시에 그것을 아날로그적인 감수성과 노동과 함께 결합해 매혹적인 경험의 장을 연출하는 쪽으로 풀려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처럼 미술은 우리가 사물과 세계를 보는 눈과 감각을 확장시켜주는 일이자 인간이 꿈꾸는 욕망과 환상, 꿈과 가상의 세계를 감각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일임을 깨닫게 해 준다. 전시는 10월 12일까지. S

에디터 신현화 글 박영택(경기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미술평론가) 사진 이종근 도움 주신 곳 대림미술관(02-720-0667)



# 기어짐없이 9대째 이어가는 조선백자의 '혼불'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중요무형문화재 시가지장 보유자인 김정옥 선생. 그를 필두로 아들 김정식, 손자 김지운까지 가업을 잇는 백산가는 9대째 이어지고 있는 도예 명문가다. 김정옥 선생은 2004년 설화수 윤조에센스 광고 작업에도 참여하며,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준 바 있다. 선조로부터 이어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우리 고유의 도자기를 되살리고 있는 백산가 3대를 만났다.

까무룩, 졸기 쉬운 여름 땀벌이라 그곳의 오후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웬걸, 갓 빛은 자기를 말리느라 벌건 군불까지 땀 작업실은 벽에서조차 땀이 흐를 듯했다. 새조차 넘기 버겁다는 경북 문경새재에 터를 잡은 백산선방(白山禪房)은 사시사철 그렇게 뜨겁다. 백산 김정옥(중요무형문화재 제105호) 선생이 이곳에 가마(영남요)를 짓고, 뜨거운 사계절을 보낸 지도 어느덧 수십 년째다. 연료와 열정을 갖춘 이 땅의 도공이 어디 그런 사람뿐이겠는가. 그런데 어쩌서 백산은 한국 최초의 도예 명장이자, 유일한 사기장으로 지정된 것일까?

전기 물레와 가스 가마가 보편화된 지금도, 노구를 힘겹게 움직여 발물레를 돌려서? 아니면 전통요인 망댕이 가마에서 적송을 태우는 옛날 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전통을 고수하는 장인 정신이야 존중하고도 남을 일이다. 하지만 백산이 투박함 속에서 빛나는 우리 전통 도자기의 맥을 짚어내고, 이룰 수 있는 건 그의 가문과 무관하지 않다.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의 명품은 공예 장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와 도제식 '전통 잇기'에 그 비결이 있다. 반면, 한국의 전통 공예는 장인정신과 기술력의 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크다. 그런 점에서 백산의 가문은 독보적 내력이라고 해야 한다. 그의 7대조가 정착한 곳이 사기그릇을 굽는 문경의 도예촌이었고, 그때부터 그의 집안은 '그릇'과의 질긴 연을 잇게 되었다. 백산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릇들이 옛 도자기의 질박함을 지닐 수 있는 건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렇듯 가문 대대로 면면히 이어져 오던 전통의 숨결 덕분일 것이다.

“조부이신 운자 회자 쓰시는 할아버님께서 솜씨가 뻐어나셨던 모양입니다. 나라에서 운영했던 관요(광주 분원)에 도공으로 발탁돼 올라가셨으니까요. 물론 제 아버님도 관요에서 그릇 빛는 법을 배우셨죠.” 이것만 봐도 백산은 조선백자의 순수 혈통을 이어받은 '적자'라고 할 수 있다.

“할아버지께서 관요에 가보니, 흙을 매죽덩이 모양으로 빚어 어렵게 가

마를 짓고 있더라고요. 해서 조부께서 문경의 전통적 가마 방식인 망댕이 가마의 제작 기법을 선보였답니다. 당시 관요에서 쓰던 가마는 튼튼하지 못해 자주 수리를 해야 했는데, 조부께서 만드신 망댕이 가마는 무척 견고했던지라, 관요에 있는 모든 도공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거죠. 관요의 책임자가 술과 돼지고기를 푸짐하게 내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자부심 때문에 백산은 지금도 선조로부터 이어져온 망댕이 가마만을 고집한다. 망댕이 가마는 문경 지방만의 독특한 재래 가마 기법으로, 일반적 가마와는 구조와 모양새가 크게 다르다. 산등성이에서 마을 쪽을 향해 누에처럼 길게 누운 형태로 지어진 망댕이 가마는, 가마를 만들 때 진흙을 짓이겨 말린 후 이를 토막 낸 절굿공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쌓는 방식을 말한다. 그러면 천장 부근에 이르러서 돔 형태가 되는 것이 형태적 특성이다.

백산이 도공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건 그의 나이 18세 무렵. 늦둥이 막내아들로 태어난 백산에게 그의 아버지는 굳이 기술을 전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저것 다른 일도 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무지 적성에 맞질 않았죠. 그런데 그릇 만드는 일만큼은 적성에도 맞았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릇 만드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더니, 타고난 팔자가 아니고 무엇이라. 타고난 도공을 줄줄이 배출해온 백산가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청화백자'다. 백산가의 청화백자엔 가문의 전통 문양이라 할 수 있는 '포도 덩굴'이 들어간다. 어쩌면 다산과 변영을 상징하는 포도 문양으로 그의 집안이 이처럼 오랜 세월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계속 생산해낸 것은 아닐까. 지금이야 좋아진 세상 덕에 그릇 굽는 일이 수월해진 편이지만 백산이 도예의 길로 접어들 당시, 족히 20관 남짓한 나무를 지고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고, 몇 십 년 지계질의 대가로 등에 주먹 크기의 흙 하나를 훈장처럼 얻어야 했다. 그뿐이라. 지계 질땀을 어깨에 걸고 바위에 무릎을 대고 일어나기를 수천 번, 그 습관은 왼쪽 무릎을 상하게 했다. 그러니 그인들 자신의 자식에게 그 고된 길을 권하고 싶었을까. 하지만 예비역 대위로 예편한 외아들 경식 씨는 스물아홉이라는 늦은 나이에, 마치 운명의 손길에 이끌리듯 도공의 길로 접어들었다.

“쉬운 길은 아니었죠. 가업을 잇고자 하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늦게 입문하다 보니 손에 기술이 익기까지 시간도 더디 걸리고, 전수 조교가 되는 데 어언 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습니다. 일종의 테



1 얼굴에 묻은 흙을 쓱 훑어내며, '도공 얼굴에 흙 묻은 게 이상한가?'라며 웃었던 김정옥 장인. 2 도공이 그릇을 떠낸 자리가 허하다. 그러나 미처 그릇이 되지 못한 아래 흙도 도공의 손길에 닿으면, 비로소 생명을 얻을 것이다. 3 흙 한 덩이를 슬쩍 들어 올려 물레에 얹으니, 순식간에 찻사발이 줄을 선다. 장인의 내공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4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저 발 물레를 돌렸을까? 그 시간만큼 백산의 백자는 조선백자의 원형으로 다가가고 있을 것이다.



백산 김정옥 선생은 2004년 설화수 윤조에센스 아트캠페인의 작가로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달항아리 작품을 광고 소재로 활용하여 주목을 얻었다. 남침도 모자람도 없이 유려한 백자의 걸작을 빚어내는 작가의 장인정신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해 최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설화수 브랜드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삼수 만에 통과가 됐죠.”  
 이 땅에 손에 흠 묻히고 불과 마주앉은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그러니 관문을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웠으리라. 혹여 외아들이란 의무감이 컸느냐는 질문엔 “일을 즐기는 마음이 더 컸다”고 했다. ‘피 내림’이란 참으로 무서운 모양이다. 그런 아버지 곁에 앉아 물레를 돌리고 있는 백산의 손자 지운(목원대 도자기디자인학과) 군은 새내기 대학생이다. 백산 가문의 9대째 도공이자, 대학에서 도예를 배우는 첫 세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명성의 무게가 어린 손자에게 너무 큰 짐은 아닐까?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쯤 그냥 도예를 해야지 싶었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전공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시작하는 단계라 큰 각오를 갖기보단, 하나하나 착실하게 배우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백산은 다복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 땅 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길을 이어갈 제자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들에 손자까지 마다하지 않고 기업을 잇고 있으니 말이다. 자손뿐만이 아니다. 이미 그의 제자 여럿이 부여, 영광, 상주, 김천 등지로 퍼져 자신의 가마를 운영하고 있다.  
 “제 꿈이 뭔지 압니까? 전국 어디를 가도 제 제자들이 그릇을 굽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3대가 영남요에서 만드는 그릇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앞서 말한 청화백자와 달항아리, 여기에 정호다완이 대표적이다. 도공이 아무리 잘

빚은 그릇이라도 가마에서 절반 정도의 완성작만 건질 수 있다. 그가 운데서도 특히 정호다완(井戶茶碗)이 가장 힘들다고 한다. 백산의 말에 따르면, 그릇을 빚던 우리 조상들의 기술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정호다완이다. 그만큼 정호다완은 만들기가 무척 까다로운 그릇이다. 굽 부분의 매화피(유약이 뭉친 현상), 옛절(그릇에 균열이 생기는 현상), 그리고 빗갈과 굽의 축절 마디 등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실패하기 십상이라서 그렇다. 백산이 지난 1991년 도예 부문에서 최초로 명장이 되었던 것도 ‘정호다완’이라 불리는 찻사발 덕택이었다. 정호다완은 우리나라 찻사발의 대표적인 형태로,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건너가 국보(26호)가 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의 집, 작은 전실에는 백산의 조부에서부터 아들 경식 씨에 이르기까지 4대의 작품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다. 내년쯤이면 이 모든 작품들이 백산선방 옆에 들어설 반듯한 전수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 손자 지운 군의 작품이 빈자리를 채워갈 것이다. 이렇게 백산가의 가업은 이어지고 있다. S  
 에디터 신현화 글 최태원 사진 이은숙 캘리그래피 이규복  
 1 두 개의 반달 모양이 겹쳐 만들어진 달항아리의 옆선이 어떤 비교도 거부하는 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2 달항아리와 청화백자가 망량이 가마 옆에서 그윽한 빛을 발한다. 3 이제 갓 스물, 청년의 꿈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 하지만 백산가의 내일을 열 김지운 군의 표정은 어딘지 결연해 보인다. 4 정호다완의 백기는 단언컨대 유약이 뭉쳐 만들어진 ‘매화피’일 것이다.

감국차  
月과菊이 만나  
秋를 이루고



## 오곡백과에 만월이 깃들다

산과 들에 노란 국화가 가득하고, 어린아이들은 밤을 깨려 손을 뻗는다.  
밤하늘 가득 만월이 차오르니 가을날 추석의 밤이 깊어진다.

푸드 아트 이종국 어시스턴트 최은미, 윤현석, 조태진 사진 이종근 에디터 김미경



밤대추 영양밥  
栗에 가족의 사랑을 담다





五穀百果에 滿月이 깃드니 秋夕이로다  
율란과 국화전



### 감국차

감국은 말린 국화를 의미하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약재나 차의 재료로 주로 사용한다. 산과 들, 해안가에 자라는 야생 국화를 말린 감국은 특유의 진한 향기를 지녔으며 그 맛은 달고 쓰다.

Dried chrysanthemums are often used for medicine or tea i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Dried wild chrysanthemums found in the woods, fields, and shores have unique rich flavors and taste sweet and bitter.

### 밤대추 영양밥

밤은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칼슘과 칼륨 등 필수영양소가 고루 함유되어 있으며, 밤껍질인 울피는 피부 탄력, 진정, 미백에 탁월한 효능을 지녔다. 밤은 껍질을 깎아 날로 먹거나 삶아서도 먹지만, 풍부한 영양소의 밤과 탁월한 항암 효과의 대추, 치매 예방에 좋은 잣을 가을에 수확한 햅쌀과 함께 밥으로 지어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풍미를 자랑하는 밤대추 영양밥으로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Chestnuts are rich in essential nutrients, such as carbohydrates, proteins, vitamins, calcium, and potassium. Its skin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skin firming, soothing, and whitening. The chestnut can be peeled off and ingested raw or boiled, but the nutritional chestnuts are often mixed

with dates for anti-cancer actions, with pine nuts for preventing dementia, and with freshly harvested rice to make the chestnut and date rice rich in sweet and nutty flavors.

### 율란과 국화전

밤을 삶아 으갠 뒤 꿀을 넣어 밤 모양으로 만들고 계핏가루를 묻힌 율란은 황해도 안악 지방에서 즐겨 먹던 향토 음식으로, 말린 밤과 꿀을 이용해 밤 모양으로 빚어 먹던 한과다. 한편 선조들은 추석을 맞아 말린 감국꽃을 물에 담가 건져낸 후, 찹쌀가루와 소금을 넣어 반죽한 위에 장식해 화전처럼 기름에 지져 먹는 국화전을 즐겼는데, 풍요로운 가을의 정취를 그대로 담은 계절 별미 요리라 할 수 있다.

Yullan is made by boiling and mashing chestnuts, mixing them with honey to knead into the shapes of chestnuts, and rolled over cinnamon powder. It was a popular native snack of Anak of Hwanghae-do Province made with dried chestnuts and honey. The Korean ancestors also enjoyed the chrysanthemum cakes for Chuseok. Dried chrysanthemum flowers were soaked in water and then placed on top of sweet rice powder dough and sprinkled with salt to make pan-fried cakes.

설화수를 말하다



자음생 아이크림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ye Cream

노화로 인한 주름, 눈가 피부 처짐 등 노화된 눈가에 탄력을  
부여해 또렷한 동안 눈매로 가꾸어주는 아이크림. 메마르고  
얇아진 눈가 피부를 한결 부드럽고 윤택하게 가꿔준다.  
골드 오브제는 스토어앤스토리지, 골드 빛 펜 트레이는 메탈플레이.

## 고귀한 아름다움을 담다

귀한 성분을 담아 젊음의 기운을 선사한다. 고귀한 금빛 속에 젊고 건강한 피부 미인의  
꿈을 실현하는 설화수 시그니처 라인, 자음생 제품을 소개한다.



### 자음생 크림

####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고농축 인삼 결정체가 피부 속부터 탄탄한 힘을 살려줘 피부 겉부터 속까지 힘 있게 살아나도록 돕고, 피부 노화의 징후를 감소시켜 주는 한방 고농축 인삼 크림. 인삼의 뿌리와 열매까지 총체적으로 사용하여 인삼의 생명력이 피부에 힘을 전해, 피부 노화 징후를 케어한다.

골드 트레이 모두 메종드실비.



### 자음생 진분유

####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Essential Oil

인삼 종자유가 피부의 힘을 강화해 쉽게 나이들지 않는 피부로 케어해 주는 한방 에센스 오일. 하나의 종자에서 단 0.004ml의 오일을 1년에 단 한 번 채취하는 귀한 성분인 인삼 종자유는 인삼씨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피부 방어력을 높여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준다.

골드 트레이와 오브제 모두 스토어앤스토리지.

에디터 김미경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어시스턴트 김혜진 정지혜, 황남주, 고경은 **도움 주신 곳** 메종드실비(02-518-2220), 메탈플레이(<http://metaplay.co.kr>), 스토어앤스토리지(070-8273-4502)



# 가을 산, 붉게 물들어

예부터 전해지는 산수화의 사계절 표현 중에 '가을 산은 화장한 듯 밝고 맑다고 하였다. 울긋불긋 수줍음도 잠시 만개한 웃음으로 화려한 절경을 선사하는가 싶더니, 가을은 이내 그윽한 운치를 더하며 고요히 이을어간다.

개중에 떠들썩하기로는  
가을 산이다. 산이란 산은  
온통 단풍 범벅을 쓴다.  
울긋불긋한 화장이 보는  
이를 달뜨게 하는데,  
저 빛깔로 어롱진 숲에서  
뉘랑 더불어 거닐어볼꼬  
하는 생심이 단풍잎 뒤척일  
때마다 샘솟는다.

### 봄꽃보다 붉은 가을 단풍이어라

사람만 표정을 지을까. 산도 철마다 얼굴이 바뀐다. 화가는 사계절의 산을 죄 다르게 묘사한다. 그리는 법은 옛글이 알려주었다. “봄 산은 웃는 듯이, 여름 산은 성난 듯이, 가을 산은 화장한 듯이, 겨울 산은 잠자는 듯이 그러라.” 개중에 떠들썩하기로는 가을 산이다. 산이란 산은 온통 단풍 범벅을 쓴다. 울긋불긋한 화장이 보는 이를 달뜨게 하는데, 저 빛깔로 어롱진 숲에서 뉘랑 더불어 거닐어볼꼬 하는 생심이 단풍잎 뒤척일 때마다 샘솟는다.

그림으로 만나는 가을 색은 유난히 된다. 자연의 본색이 저리 방정을 떨어도 되나 싶을 정도다. 조선 왕조의 마지막 화원으로 불리는 안중식의 산수화를 보자. 제목이 <풍림정거>다. ‘단풍 수풀에서 수레를 멈춘다’는 뜻이 담겨 있다. 척 봐도 초가을 풍경이란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질푸른 나뭇잎이 검붉은 나뭇잎의 기세에 눌러 주눅이 든 가을 문턱, 먼 산 첩첩 연봉들은 늙은이의 뺨가죽처럼 늘어진 모습으로 저물어가는 자연의 장엄한 한살이를 연출한다. 가을이 저 심산유곡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리라. 이 그림은 그나마 점잖은 색깔이다.

하여도 근경에 자리잡은 키 큰 나무들에서 지분 냄새가 풍긴다. 마치 색조 화장은 처음이라는 듯이 나무들은 서툰고 수줍은 낯빛을 띤다. 산 중턱에는 나지막한 집채들이 숨어 있다. 그 집 울타리에도 붉은빛 가을 색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화면 아래쪽 비좁은 산길에 수레가 서 있고, 그 주변에서 세 사람이 단풍을 구경하느라 아예 뉘를 놓은 모습도 보인다. 고개를 바짝 치켜든 그들은 단풍의 교태에 마음을 빼앗겼다. <풍림정거>는 당나라 시인 두목의 시를 그림으로 번안한 작품이다. 그림을 보며 그 시를 읽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먼 가을 산 위로 돌길은 비껴 있고/ 흰 구름 이는 곳에 사람 사는 집 있구나/ 수레 멈추고 단풍 든 저녁 숲 보노라니/ 서리 맞은 잎들이 봄꽃보다 오히려 붉어라.’

### 맑고 그윽한 가을비에 취하여

가을의 이미지라 해서 마냥 울긋불긋하기만 할까. 그렇지 않다. 오죽하면 가장 맑은 것을 일러 '가을 물(秋水)'에 비유했을까. 17세기에 태어난 문인화가 신로는 맑은 산수화 한 점으로 시원한 가을의 운치를 되살려낸다. '가을비와 낮잠'이란 뜻의 <추우우수>가 바로 그 작품이다. 연못과 정자가 갖춰



<풍림정거>

안중식, 1913년, 비단에 채색  
165.2×70.3cm, 삼성미술관 리움



< 월야산수 >

김두량, 1744년, 종이에 수묵담채, 82.0×49.2cm, 국립중앙박물관



< 추우오수 >

신로, 18세기, 비단에 수묵담채, 41.0×53.7cm, 개인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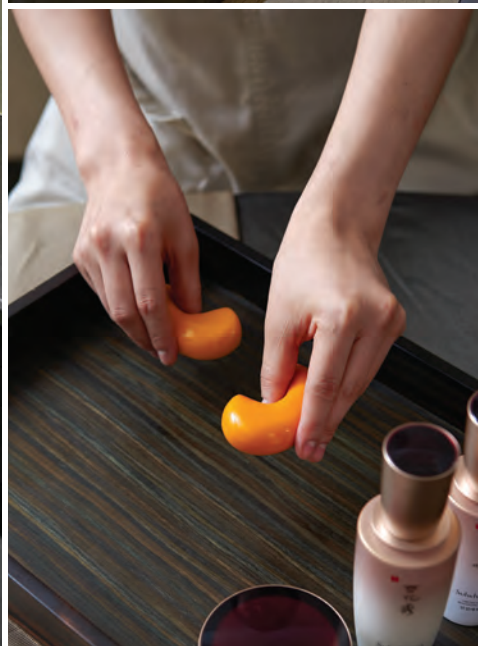
진 어느 선비 집의 뒤뜰이다. 낮잠에서 막 깨어난 선비가 비스듬히 누워 연잎에 후두두 떨어지는 빗 소리를 듣는다. 왼편 민둥산과 오른편 바위산을 보니 그 아래가 자옥한 비안개에 둘러싸였다. 저 먼 곳에서 점차 날이 개는데, 정자 주변 돌 틈 사이로 단풍잎은 금세 내린 가을비에 씻겨 더욱 어여쁜 빛을 뽐내고 있다. 주인이 느긋이 가을 정취를 즐기는 동안 심부름하는 아이는 우산을 쓴 채 슬병을 나른다. 그림 속에 적힌 시도 가을비에 젖었는지 덩달아 습습한 기운을 내뿜는다.  
'연잎에 비 뿌리니 꿈이 서늘하고/ 바위에 구름 피어나 옷이 축축하구나.'

때론 시리도록 쓸쓸한 가을밤처럼

가을은 누가 무어라 해도 쓸쓸하기 그지없는 계절이다. '고요히 말려 죽인다'는 의미의 '숙살(肅殺)'이 대견 으름가는 가을의 인상 아니던가. 18세기 화가 김두량이 그린 <월야산수>는 가을밤의 괴괴한 느낌이 시리도록 서늘하게 다가오는 작품이다. 앙상한 가지, 덩두렛하게 솟은 달, 낮게 깔린 이 내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서와 맞춤하게 어울린다. 그림 속에 적힌 글씨에서 이 그림을 그린 해가 1744년이고, 그린 날은 추석날 밤인 것을 안다. 바로 270년 전 조선의 보름달 뜬 추석 밤 풍경을 지금 보고 있는 셈이다.

숲 속에 인기척은 눈 씻고 봐도 없다. 달빛은 교묘한데, 세찬 계곡 물살이 애오라지 정적을 깨뜨린다. 김두량의 솜씨는 나무를 그린 데서 정점을 찍는다. '나무의 다빈치'라 불려도 손색이 없었던 그는 조락한 가을 나뭇가지를 기막히게 묘사했다. 마치 계의 발톱처럼 뾰족뾰족하게 생긴 끝에서 가을 나무의 혈맥은 심사가 드러난다. 가을밤이 시름 속에 저문다. S

에디터 신현화 글 손철주(미술평론가)



## 적송으로의 피부 회복

푸석푸석, 활기를 잃어버린 가을철 피부를 위한 선택, 설화수 스파 시그니처 진설 프로그램으로 피부를 회복시킨다. 적송의 여운이 마음까지 깃드노니.

제아무리 타고난 피부 미인일지라도 가을철 손상된 피부는 피할 수 없다. 여름 내내 강한 자외선과 더위로 지친 피부를 위해 휴식 시간이 필요할 때, 시그니처 진설 프로그램이 피부의 생기를 되찾아줄 것이다. 대표적 설화수 스파 중 하나인 진설 프로그램은, 설화수 '진설 라인' 제품과 적송유, 호박을 이용해 최적의 피부 상태로 만드는 페이스 & 보디 프로그램이다. 페이스는 집중 회복케어를, 보디는 세족부터 시작해 몸 전체로 순차적인 케어가 진행되는데, 총 2시간 20분이 소요된다.

트리트먼트에 사용하는 '진설 라인'은 진귀한 적송 성분을 함유한 제품으로, 피부 보호 능력을 향상시켜 노화 고민에 대응하는 토털케어를 도와준다. 해로운 기운을 막아주는 효능이 뛰어난 적송은 잎, 가지, 뿌리, 씨앗 등 한방에서도 쓰임새가 많은 성분이다.

진설 프로그램 또 하나의 특징이 호박 트리트먼트다. 호박은 소나무 송진이 묻쳐 땅속에서 화석화된 귀한 보석으로 특히 양기가 풍부하다. 따뜻하게 이용하는 호박은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회복의 효과를 발휘한다.

신라의 향 문화에서도 '호박으로 향을 피워 백성들이 병들지 않아 아름답고 건강하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시그니처 진설 프로그램은 진설 라인과 호박 트리트먼트를 이용하여 피부에 활력을 부여하고 지친 피부를 회복시켜 최적의 피부상태를 유지시켜 줄 것이다. S

에디터 신현화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설화수 스파(롯데호텔 서울점 02-318-6121)

적송 성분을 다량 함유한 '진설 라인'은 적송의 생명력을 깊게 전달해 다양한 노화 고민에 대응하는 피부 힘을 길러준다.



No naturally beautiful skin can avoid damage in the fall. When your skin needs remedy from strong UV rays and heat in summer, our signature Timetreasure program will restore its vitality.

Our Timetreasure program, one of the signature spa programs of Sulwhasoo, is a facial and body program that uses Sulwhasoo's Timetreasure Line, along with red pine oil and amber, to restore the best condition of the skin. The facial includes intensive regeneration care, and the body program starts with a food bath and continues to the body. The entire program takes 2 hours and 20 minutes.

The Timetreasure Line for the treatment is rich in the red pine formula that enhances the protective capacity of the skin, to revitalize your skin. The red pine inhibits harmful energy, and its leaves, stems, roots, and seeds are widely used in Korean herbal ingredient. Another characteristic of our Timetreasure Program is the amber treatment. Amber is a precious gemstone of fossilized pine sap and is particularly rich in Yang energy. It is warmed before it is used by the therapist to enhance the blood circulation and tranquilize the body and mind. With regard to the incense of Silla, it is recorded that "Amber is burned as incense to keep the commoners beautiful and healthy." Our amber treatment enhances the regenerating effect of our Timetreasure Line.

\* 설화수 스파는 설화수가 추구하는 미의 철학과 가치를 전문가들의 손을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http://www.sulwhasoo.co.kr)

롯데백화점 잠실점(4층)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의 02-411-0262

롯데호텔 서울점 운영시간: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문의 02-318-6121

## 동서양 피부 미인의 비법

안티에이징 비법이 따로 없던 시절, 여인들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피부를 가꿨다.  
클레오파트라에서부터 서태후까지 세기의 미인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동안 피부의 비결! 호두다.



클레오파트라, 중국의 서시와 양귀비, 서태후는 동안 피부로 유명한 미인들이다. 그중에서도 서태후는 중국 역사상 최고의 피부 미인이라 평가받는데, 70세에도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간직하였다고 한다. 이들 미인들의 공통된 피부 관리 비결이 바로 호두다. 항노화 비법이 따로 없었던 옛 여인들은 음식물 섭취를 통해 피부를 가꿨다. 특히 중국의 귀족들은 호두를 미용식으로 애용했다고 한다.

세종 때 의서 <향약집성방>에는 ‘호두를 먹으면 몸이 비대해지며, 피부가 윤기가 나고, 모발이 검어진다. 또한 오치(五痔)를 치료한다. 조금씩 먹으면 경맥이 잘 통하고, 혈액이 윤택해지며, 모발도 검어지지만, 많이 먹게 되면 담음(痰飲)이 생기므로 조금씩 먹는다고 하였다. 또 <향약집성방>에는 어린이의 각종 피부 질환에 호두를 직접 처방한 기록도 나온다.

<동의보감>은 물론, 중국 의서 <본초강목>에서 인용한 <식료본초>에도 ‘호두는 늘 먹으면 사람의 골육이 부드러워지고 광택이 있으며, 머리가 검고 윤기가 나고, 혈액이 통하여 윤택해진다’는 비슷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옛 문헌에서도 호두가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호두는 인간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나무 열매다. 원산지는 유럽이고, 중국과 아시아에도 고루 분포한다. 호두는 40~50% 지방유를 함유하고, 그 주성분이 필수지방산의 하나인 리놀레산이다. 또한 단백질과 다양한 종류의 비타민이 풍부하여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쓰인다. 소화기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

특히 호두는 뇌 발달에 좋은 대표 음식으로 유명하지만 숨은 특효가 바로 피부 미용이다. 호두는 단백질, 지방, 인, 칼슘, 비타민 A, B, C, E와 미네랄이 풍부하여 노화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특히 비타민 E와 지방산은 항산화 작용을 도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준다. 비타민 E의 경우 100g당 2.4mg이 함유돼 있는데, 피부에 해로운 과산화 지질을 억제해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준다. 또 비타민 E는 혈액순환 개선, 상처 치유 촉진, 근육 강화를 도와준다.

최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스크랜튼대학 조 빈슨(Joe Vinson) 박사

가 견과류 중 호두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생 호두에 포함된 항산화제는 비타민 E보다 15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 또, 일반적으로 견과류는 열을 가해 볶는 탓에 항산화 성분의 질이 떨어지지만, 호두는 생으로 먹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 효과를 100%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호두는 들어서 무게가 느껴지고 껍질을 까지 않은 것이 좋다. 작고 구멍이 뚫린 것은 벌레가 먹은 것이니 구입 시 주의한다. 껍질을 깠 호두는 진공 팩이나 탈산소제 등으로 산화를 예방한 제품으로 고르고, 가능한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산화된 호두 섭취는 먹지 않은 것만 못하다. 또, 호두를 먹은 후에는 바로 음료를 먹지 않는다. 음료수와 호두의 기름이 섞이면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호두는 10g당 67kcal로, 견과류 중에서 열량이 가장 높다. 맛이 좋아 한자리에서 여러 개 먹다보면 쉽게 칼로리를 초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루 1~2개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안티에이징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S

에디터 신현화 사진 문성진 스타일리스트 문지윤 도움 주신 곳 정소영의 식기장(02-541-6480)



| 공연 |

## 영화 <블랙 스완> 안무가의 또 다른 전을 <벵자망 밀피에 & L.A. 댄스 프로젝트>

현재 가장 '핫'한 안무가이자 항상 새로운 예술로 무용계를 떠들썩하게 한 벵자망 밀피에가 한국 무대에 오른다. 에디터 신현화



향후 유럽 무용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거장으로 촉망받는 안무가인 벵자망 밀피에(Benjamin Millepied)의 공연이 한국 관객들에게 공개된다. 밀피에는 영화 <블랙 스완>의 안무가이자 나탈리 포트만의 남편으로 더 알려져 있지만, 그는 무용계의 저명인사다. 뉴욕시티 발레단 수석 무용수 출신인 밀피에는 파리 오페라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마린스키 발레단, 리옹 오페라 발레단 등 내로라하는 무용 단체의 안무를 맡았다.

그는 2014년부터 37세라는 젊은 나이로 프랑스 대표 무용단인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임명되었고, 2012년에는 미국 LA에 '새로운 예술을 선보이겠다'며 무용단 L.A. 댄스 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세계 여러 무용단들에 의해 20년째 리바이벌될 정도로 사랑받고 있는 <퀸텟>과 2013년 파리 사틀레 극장에서 벵자망 밀피에 안무로 초연된 <리플렉션>이다. 특히 신작 <리플렉션>은 미국 유명 사진작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바바라 크루거(Barbara Kruger)의 미니멀하면서도 강렬한 색감의 무대와 풀리차상 수상자이자 자유분방한 음악으로 뉴욕 음악계를 발칵 뒤집은 '뱅 온 어 캔'의 창단 멤버 데이빗 랭(David Lang)의 미니멀한 피아노 음악이 덧입혀졌다. 무용수가 마치 건반 위를 뛰어노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시** 11월 13~14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2005-0114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 <발레 춘향>



한국의 고전과 서양의 발레가 만났다. 한국 창작 발레 역사상 가장 기품 있는 남성 독무로 평가받는 이몽룡의 과거시험 장면인 '일 필휘지'와 춘향과 몽룡의 아름다운 사랑의 2인무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터. 유니

버설 발레단 작품. **일시** 9월 27~28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399-1114 **관람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C석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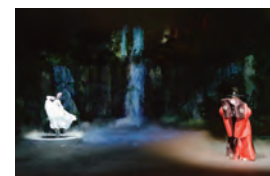
### 오페라 <오텔로>



원작의 재구성과 방대한 스케일의 음악적 표현으로 선보이는 장엄한 비극의 오페라. 세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이 낳은 두 명장, 오페라 지휘자 그래엄 젠킨스와 연출가 스티븐 로리스가 빛어내는 아름다운 대작이다. **일시** 11월

6~9일 **장소**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586-5284 **관람료**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8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 전통 무용극 <배비장전>



한국 전통 문화예술의 대중화와 세계화, 명품화를 위해 품격 있는 전통 공연을 선보여온 정동극장의 2014년 신작. <배비장전>은 조선시대 풍자 문학의 대표작으로, 지배층인 양반들의 위선과 인간 본연의 욕망을 빗대어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이 돋보인다. **일시** 연중 상설 **장소** 정동극장 문의 02-751-1500

**관람료** VIP석 6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 뮤지컬 <레베카>



강렬한 음악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신비로운 무대 연출로 2013년 상반기 '레베카 신드롬'을 일으켰던 뮤지컬 <레베카>가 돌아온다. 뛰어난 작품성과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민영기, 오만석, 엄기준, 유주현, 리

사 등이 출연한다. **일시** 9월 6일 ~ 11월 9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 문의 02-6391-6333 **관람료** VIP석 13만원, R석 11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 콘서트 |

## '만나는' 조화의 향연 요요 마 & 실크로드 앙상블

세계적 첼리스트 요요 마와 실크로드 지역의 음악가들이 모인 '실크로드 앙상블'이 내한한다. 동서양 음악의 앙상블이란 이런 것임을 보여줄 터.



세계적인 첼리스트 요요 마와 그에 의해 창단된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15주년 기념 공연이 한국에서 열린다.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1998년 요요 마에 의해 창단된 범세계적인 비영리 문화·교육 기관이다. 요요 마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몽골, 이란, 인도, 터키 등 옛 실크로드 지역에 위치한 국가의 음악가들을 모아 '실크로드 앙상블'을 구성했다. 요요 마를 음악감독으로 한 이 앙상블은 전 세계를 돌며 음악을 매개로 동서양의 문화를 잇고, 전 세계의 연주자와 관객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무대를 펼쳐왔다.

실크로드 앙상블은 음악은 '섞이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것'이라고 하는데, 서양의 아름다운 선율과 동양의 즐거운 흥을 조화시켜 놀랄도록 흥겨운 무대를 선사한다. 실크로드 앙상블의 레퍼토리는 동서양 악기가 조화된, 기존의 음악 갈래를 구분 짓는 관습을 초월하여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는 곡들뿐 아니라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구전 음악과 실크로드 앙상블 단원들에 의해 새롭게 편곡된 선율 등의 전통적인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첼로,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한국의 장구, 스페인의 가이타, 이란의 카만체, 중국의 피파와 생, 인도의 타블라, 일본의 사쿠하치가 어우러진 무대는 관객은 물론, 연주자의 호기심도 자극한다.

**일시** 10월 28~29일 **장소**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28일),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29일) 문의 1577-5266 **관람료** R석 18만원, S석 14만원, A석 10만원, B석 5만원

### 팻 메스니 유니티 그룹 내한 콘서트



현존하는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 팻 메스니가 그의 음악을 총망라한 새로운 프로젝트 '유니티 그룹'으로 내한한다. 각 분야에서 최고의 개성을 자랑하는 뮤지션과의 조합이 빛어내는 음악적 오라를 목도할 수 있을 터. **일시**

10월 5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02-563-0595 **관람료** VIP석 16만 5천 원, R석 13만 2천 원, S석 11만원, A석 8만 8천 원, B석 7만 7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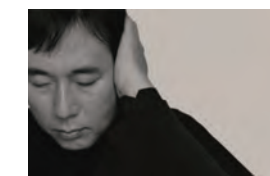
### 2014 크레디아 파크 콘서트



클래식 아외 공연으로 자리 잡은 파크 콘서트 첫째 날에는 유키 구라모토, 이루마, 리처드 용재 오닐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악가들이 총출동하는 <로맨티스트> 콘서트다. 둘째 날은 월트 디즈니의 음악을 라이브로 만

나는 <디즈니 인 콘서트>가 열린다. **일시** 9월 20~21일 **장소**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문의 1544-1555 **관람료** R석 8만원, S석 6만원, 피크닉석 3만원 외

### 재즈로 들려주는 김광민의 가을 편지



고양문화재단 <아침 음악 나들이> 콘서트 시리즈의 하나로, 피아니스트 김광민이 무대에 오른다. 섬세한 터치와 감성적인 정서가 짙게 드리워진 그의 연주는 언제 들어도 들

는 이의 마음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특유의 잔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깊은 가을의 여운을 남길 터. **일시** 9월 25일 **장소** 고양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 문의 1577-7766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 존 레전드 내한 콘서트



그레미상 9회 수상에 빛나는 현존하는 최고의 '소울 레전드' 존 레전드가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기본에 충실한 어쿠스틱 버전의 언플러그드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이며, 현악 4중주 팀과 존 레전

드의 밴드가 함께 온다. 최고의 소울을 만날 더없이 좋은 기회. **일시** 9월 28일 **장소** 약스코리아 문의 552-2505 **관람료** 스탠딩, 지정석 모두 13만 2천 원



### 순간을 믿어요 〈Magical Moment; 우리 삶의 빛나는 순간들 – 조던 매터 사진전〉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매료되어 사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조던 매터. 그의 작품은 유틸 있고, 에너지가 넘치며, 독창적이다.



조던 매터는 트램펄린이나 와이어, 안전장치 없이 도약하는 무용수의 정직한 신체 움직임을 순간 포착하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계 정상급 무용수, 서커스 단원들과 함께하여 더욱 유틸 있고, 에너지 넘치는 강렬한 작품을 선보인다. 〈Dancers Among Us〉 시리즈 신작과 더불어,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Circus Among Us〉에서는 태양의 서커스단(Cirque du soleil) 솔리스트로 활약한 세계 최고의 폴 곡예사 에두아르 두와예(Edouard Doye), 〈타입〉지에서 선정한 미국 최고의 광대 벨로 녹(Bello Nock) 등과 진행한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 공개된다.

조던 매터는 2012년 사진집 〈Dancers Among Us〉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반스앤노블 최고의 책 등으로 선정되며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술계 전문가들의 찬사를 받으며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야구선수이자 배우로도 활동했던 조던 매터는 사진작가인 조부 허버트 매터와 영화감독인 부친 알렉스 매터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받았으며, 특히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매료되어 사진에 본격적으로 입문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서 개인전 〈우리 삶의 춤이 된다면(Dancers Among Us)〉을 선보였다. 전시 기간 중 내한하여 발레리나 김주원 등 국내 정상급 무용수들과 함께 광화문, 경복궁 등 서울을 배경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국내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바 있다.

일시 10월 26일까지 장소 사미니미술관 문의 02-736-4371 관람료 9천원

### 박노해 볼리비아 사진전 〈티티카카〉



박노해 시인은 하늘과 맞닿아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수 중의 한 곳인 '티티카카'로 우리를 안내한다. 잉카인들에게 '세상의 근원'이자 '마음의 고향'인 티티카카에서 만나는 볼리비아 원주민의 삶을 사진에 담았다. 사진에 더해진 시인다운 그의 글이 두 배의 감동을 전할 터. **일시** 11월 19일까지 **장소** 라카페 갤러리 문의 02-379-1975 **관람료** 무료

### 〈김영택 판화전〉



김영택은 기록 판화 장르를 재탄생시키면서 독보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베이징 천단 기년전, 로마 콜로세움, 오사카 오사카성 등 해외 건축 문화재 작품의 원본이 처음 공개되며, 최근 방한한 퍼스트레이디 펄리우안 여사에게 증정한 기념패에 들어간 '부용정' 판화본도 전시된다. **일시** 9월 29일까지 **장소** 롯데호텔 롯데갤러리 문의 02-723-3340 **관람료** 무료

### 〈조선청화靑畵, 그 푸르름에 물들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조선 청화백자 전시. '백자청화대해사무늬항아리(국보 170호)' 등 국내외 소장 조선 청화백자와 김환기, 이우환, 박영숙 등 현대 회화 및 도자 작품까지 총 500여 점의 전시된다. **일시** 11월 16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02-2077-9265 **관람료** 성인 5천원, 중등학생 4천원, 초등학생 3천원

### 2014 광주 비엔날레



올해 콘셉트는 '타전을 불태우라'다. 제도권에 대한 저항과 도전,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출발 등의 의미를 설치, 퍼포먼스, 뉴 미디어, 영화, 연극, 음악, 건축 등으로 표현한다. 현대미술의 스타 제레미 델리, 얼스 피셔 등 국내외 105명의 작가가 초대되었다. **일시** 11월 9일까지 **장소**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광주 중외공원 일대 문의 062-608-4240 **관람료** 1만 4천원

### 문인들마저 사로잡은 시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다〉 & 〈가재미〉

공식은 시어와 특유의 고요한 서정으로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한 문태준 시인. 그가 새롭게 출간한 시집 소식과 함께 대표적 전작을 소개한다.



### 화가, 혁명가 그리고 요리사



바버라 킹슬버가 7년의 세월, 작가로서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완성한 작품.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레온 트로츠키 등 실존 인물들과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인 소설가 해리스 셰퍼드의 인생이 교차하면서 드러나는 역사의 뒷이야기들은, 표면적 사실들만 기억하는 현대인들에게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지은이** 바버라 킹슬버 **출판사** 아에이치코리아

###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



천명관이 7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소설집이다. 풀리지 않는 인생, 고단한 밑바닥의 삶이 천명관 특유의 재치와 필치로 살아나는 여덟 편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웃음이 나면서도 어느 순간 가슴 한구석이 퍽, 막히는 먹먹한 감동을 얻게 된다. 또한 그 여운이 진하게 오래 남는다. 통쾌한 문학적 한방은 더욱 강렬해졌다. **지은이** 천명관 **출판사** 창비

### 영원의 철학



시대를 초월한 영성의 고전. 동서고금 420여 개의 보석같은 인용문을 통해 '영원의 철학'을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1945년 출간 이후 끊임없이 언급되고 재인용되었으며, 2세기에 그 깊이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허슬리를 〈멋진 신세계〉의 천재 작가로만 알고 있던 독자들에게 새로운 지적 자극과 충격을 안겨줄 터. **지은이** 올더스 헉슬리 **출판사** 김영사

### 뉴스의 시대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 전하는 뉴스의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 그는 이 책에서 뉴스를 소재로 우리 시대의 미디어를 둘러싼 풍경을 날카롭게 묘사하면서, 쇠도하는 뉴스와 이미지들 속에서 좀 더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뉴스를 수용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언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 묻는다. **지은이** 알랭 드 보통 **출판사** 문학동네

문태준 시인은 문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으로도 유명하다. 오래된 것 같지만 공식은 시어와 특유의 고요한 서정으로 주목받아온 그는 미당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동서문학상 등 한국의 굵직한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번에 출간한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다〉는 문태준 시인이 사랑한 시들을 엮은 시집이다. 또한 문태준 시인이 〈불교신문〉에서 해설을 쓰며 연재했던 것들을 수정 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시인은 잃어버린, 잃어가는 인간 마음의 본성을 들여다보고 찾게 해 주는 시들을 중심으로 엮었다 한다. 위기가 필요할 때, 평안을 주고 싶을 때 마음에 더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말보다 시라고 그는 말한다. 이번 시집은 그러한 시들로 가득하다. 산사에 머물며 정신을 수행하는 템플 스테이 같은 시들이 담겨 있다.

문태준 시인의 대표적 시집을 꼽으려면 단연 〈가재미〉라 할 수 있다. 시를 즐겨 읽지 않는 이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시의 아름다움과 깊은 여운을 전하는 좋은 시집이다.

특히 표제작이기도 한 시 '가재미'는 2005년 시인과 평론가 120여 명이 참여 뽑은 '문예지에 실린 가장 좋은 시'로 선정된 바 있다. 시인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풍경과 별레와 사람의 속내로 접근해간다.

〈가만히 사랑을 바라보다〉 **지은이** 문태준 **출판사** 마음의 숲  
〈가재미〉 **지은이** 문태준 **출판사** 문학과지성사

## 공연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뮤지컬 <쓰릴 미>

2007년 초연 이후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쓰릴 미>. 심리 게임을 방불케 하는 갈등 구조의 디테일한 해석과 실력 있는 배우들의 조합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쓰릴 미>를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엽서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람 일정** 10월 12일(일)

**공연 장소**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공연 티켓** R석 6명(1인 2매)

\* 티켓은 관람 당일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07년 국내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인 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쓰릴 미>. 소극장 뮤지컬의 신화를 새롭게 쓰며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작품이다. 해마다 중독성 있는 공연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며, 매 공연 기록 행진을 해왔다. 뮤지컬 <쓰릴 미>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유명하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대미문의 유괴 살인사건으로 비상한 두뇌의 소년, 동성애, 유괴, 살인 등의 충격적인 소재들이 여러 창작자들에게 모티브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창작자들의 상상력과 합쳐져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화, 뮤지컬 등 여러 장르로 탄생했다.

뮤지컬 <쓰릴 미>에 붙은 별칭 중 하나가 '스타 배우 양성소'다. 작품에 참여한 배우들이 뮤지컬 스타 반열에 오르거나 영화와 드라마 등 무대 밖 활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쓰릴 미>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류정환은 제13회 한국뮤지컬대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김무열, 지창욱, 강희늘은 <쓰릴 미> 참여 이후 영화와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공연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실력 있는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한다.

극중 섬세하고 부드러운 네이슨인 '나'에는 섬세한 연기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인 정동화와 순수한 소년의 감성을 가진 정욱진이 처음으로 <쓰릴 미>와 함께하며, 뮤지컬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점점 팬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신성민이 2013년에 이어 캐스팅 되었다. 본인을 초인이라 여기는 리처드인 '그'에

는 이전 작품을 통해 '나쁜 남자'로 폭발적인 성장과 매력적인 연기를 보여준 예석이 캐스팅 되었고, 2013년에 <쓰릴 미>에서 넓은 연기 스펙트럼과 함께 뛰어난 가창력을 보여준 '송원근과 임병근이 함께 한다.

이 작품은 심리 게임을 방불케 하는 갈등 구조를 디테일한 해석으로 이끌고 나가야 하는 극이다. 때문에 무대를 압도하는 연기력이 필수!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배우들이 참여하기에 공연 만족도가 높은 작품이 될 것이다. S

에디터 신현화 도움 주신 곳 뮤지컬해븐(02-744-4337)



## 은은하고 단아하여라 미안피니셔 <인상 케어 클래스>

설화수가 제안하는 완벽한 피부를 위한 마지막 터치.  
'미안피니셔'의 약속을 오롯이 느끼다.



지난 6월 13일, 통의동 아름지기 사옥에서 '설화수 미안 클래스'가 열렸다. 차원이 다른 맑은 윤기로 기품 있는 인상을 완성하고자 하는 설화수 제품 '미안피니셔'의 품격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다. 클래스는 설화수를 사랑하는 참가자 16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문가 3인이 강연자로 나서 기품 있는 인상을 완성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매력적인 인상'을 주제로 첫 강연에 나선 기업 교육 전문가 이민영 씨는 참가자들에게 '사람을 만나면 어딜 가장 먼저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끌리는 인상이란 곧 풍기는 이미지입니다. 사람을 마주할 때 눈, 코, 입의 디테일보다 전체적인 인상을 보기 마련인데, 이때 피부가 맑아 보이면 단정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지요. 이미지 결정 요소 중 시각적인 것이 55%나 차지한다는 한 심리학 교수의 연구 결과 또한, 맑고 건강한 피부가 사람의 인상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 수 있는 근거지요."

'How to Get Luminature Skin?'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뷰티 칼럼니스트 한주희 씨는 최근 패션 트렌드와 어울리는 뷰티 팁을 전수하며 클래스의 흥미를 더했다. 한주희 씨는 일시적인 윤기보다 시간을 들여 피부에 투자하는 '타임리스 루미네이치(Timeless Luminature)'를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설화수 연구원 한지연 씨는 'Korean Radiance'란 검색어를 예로 들며, 전 세계인이 한국인의 피부 윤기에 주목하고 있음을, 아시아 여성의 공통 화두 또한 맑은 피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설화수는 오래도록 윤기가 나면서도 안티에이징 효과를 증대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효능과 제형 연구에 몰두한 끝에, 피부의 마지막 자물쇠 역할을 하는 미안피니셔를 개발했습니다. 미안피니셔의 핵심 기술인 '녹삼효'를 피부에 안정화시켜 자연스러운 윤기가 나오도록 한 것이지요." 은은하고 단아하며 과하지 않은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네 도자기를 떠올려보라. 미안피니셔로 스킨케어의 마지막을 완성한다면 피부를 감싸는 윤기 보호막이 되어 한결 기품있는 인상으로 가꾸어 줄 것이다. S





page 06 | **Reading Korean Culture**

Every Korean noble scholar had to have paper, brush, ink, and ink stone. These four stationeries are called munbangsawoo (the four precious things for studying). Here, munbang refers to the room of noble scholars, and sawoo is a personified expression for paper, brush, ink, and ink stone. For the noble scholars, the munbangsawoo were more than just some valuables but were their buddies.



page 18 | **An Encounter with Sulwhasoo**

Yong Gul Kim was the danseur who gave up his fame in Korea and left for Paris at the age of 27. His life was a series of challenges embraced for ceaseless self-development until he finally became a soloist at Paris L'Opera Ballet. This issue features an interview with Yong Gul Kim, who is still passionate today, living a new life as a professor.



page 24 | **Quality Life**

Chuseok, one of the four major holidays of Korea, refers to the day of full moon in August of the Lunar Calendar. In the middle of autumn, when the grains ripen, Chuseok is the day when we pray for a good harvest and offer our ancestors freshly harvested fruits and crops. Greet Chuseok when the biggest full moon of the year lights up the night sky.



page 48 | **The Four Seasons of Sulwhasoo**

Autumn is here as nature is dressed up in red and yellow autumn leaves. The beauty of autumn is found in the autumn leaves, and this is also the elegant beauty of women. Autumn is the most beautiful and elegant season of Korea, where the blue sky blends with the colorful autumn leaves. Meet Sulwhasoo set in the autumn landscape filled with autumn leaves.

page 58 | **Art Class**

Experience the mesmerizing imagination of young artists at <Troika: Sound, Light, and Time-The Amazing Imagination Awakening the Senses> at Daerim Art Museum, Seoul. You can witness the flow and issues of contemporary art in the works of three artists from the Royal College of Art that combine analog sentimentality with technology.



page 64 | **Connect**

Sir Jung Ok Kim is Korea's first and only porcelain maker register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The Baeksan family is noted for its expertise in porcelain making, which it has preserved for nine generations. The tradition is currently being handed down by Sir Kim's son, Kyung Sik Kim, and grandson, Ji Woon Kim. In this issue, meet the three sons of the Baeksan family, which seeks to preserve and revive the traditional Korean porcelain making



page 70 | **Sulwhabogam**

The mountains and fields are filled with yellow chrysanthemums, and the young children are stretching their arms to pick the chestnuts. The chestnuts and persimmons are among the crops and fruits that are abundant in autumn. Chestnut peel is particularly great for skin resilience, soothing, and whitening while chrysanthemum extract cools and soothes the body when ingested as tea. The food art collection of autumn highlights chestnuts, chestnut peel, and chrysanthemums, which are good for women's body.



page 80 | **Sulwhadogam(雪花圖鑑)**

The landscape paintings of Korea capture the coming and going of autumn. The bashful colors of autumn present a splendid sight and elicit a bright smile from us, but autumn soon disappears in silence, along with the depth of its beauty and elegance. It was once written that the mountains in autumn appear "as bright and as clear as a face with makeup" in the landscape paintings of Korea.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서 응모
- 응모 마감** 2014년 10월 15일까지 (뮤지컬 관람권 응모 마감은 9월 30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뮤지컬 <쓰릴 미> 관람권
- 당첨자 발표** 2014년 11/12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윤택하게 보필해 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숙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 뮤지컬 <쓰릴 미> 관람권(6명)

2007년 국내 초연 이후 해마다 새로운 기록 행진을 해오며 스테디셀러 뮤지컬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쓰릴 미>의 10월 12일(일) 공연 관람권을 6명(R석, 1인 2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티켓은 관람 당일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현장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92페이지 참조

###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박혜순** 경기부천시 소사구
- 이현미** 세종시 조치원읍 섭골길 59
- 김순옥**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윤가을** 광주 동구 산수2동
- 양영애** 부산 연제구 거제동

#### 뮤지컬 <블러드 브라더스> 관람권(5명)

- 조명업**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하경순** 서울 강서구 방화동
- 추나래** 경기 하남시 춘궁동
- 정순옥** 경기 안산시 상록구
- 염윤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7/8월호 당첨자 선물은 9월 30일까지 보내드립니다.